

2015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 목련리포트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 TOWARDS GLOBAL EMINENCE

경희대학교

2015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2015년 6월  
경희대학교 총장실





# 목차

## 발간사

### I. 연계협력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대학

#### 1. '세계적인 미래대학' 향한 연계협력·인프라 구축

-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안) 발표 13
-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착공 14

#### 2.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 '경희미래리포트' 준비 모임 출범 17
- '경희미래리포트' 파일럿 설문조사 결과 18
- '경희미래리포트' 포커스 그룹 인터뷰·심층 토론회 18
- 성금캠페인 통합기구 '경희미래위원회' 출범 19

### II. 학문과 평화

#### 1. 교육

##### 대형 국책사업 선정

-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23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우수' 선정 23

##### 석학 특강

- 2014 경희 지적 학교 24
- 명사 특강,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 교수 초청 24
- 2014 석학 초청 특강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 24
- 2014 석학 대담 시리즈 25

##### 교육 부문 주요 성과

-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8개 학과 상위권 26
- 'QS 아시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평가 선전 26
-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사 국가고시 100% 합격 26
- 2013년 행정고시 역대 최다 합격생 배출 27
- 경영학부·영어학부·정치외교학과 최상위 선정 27

-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5년 인증' 획득 27
- 간호과학대학,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7

## 2. 연구

### 경희 연구력, 질적 수준 향상

-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 30위권 29
- '2014 라이덴랭킹' 국내 대학 순위 3계단 상승 30
- '네이처 퍼블리싱 인덱스' 세계 순위 32계단 상승 30
-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 78계단 순위 상승 30

### 연구 성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

- 권영균 교수 <네이처 포토닉스> 논문 게재 31
- 유재수 교수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 논문 게재 31
- 최석호 교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게재 31
- 박범준 교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게재 32
- 김선국 교수 <나노 리서치> 표지논문 발표 32
- 김형대 교수 <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 게재 33
- 김진성 교수팀 <근거 중심의 보완대체의학> 논문 게재 33

### 학생 연구 성과

- 이상무 학생, 투명 산화물 반도체의 광센서 가능성 제시 34
- 박주현 학생, 선박용 소형원자로에 활용 가능한 연구 결과 발표 34

### 연구 부문 주요 성과

- 박광훈 교수, HEVC 국제표준 특허 등록 35
-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35
- 경희대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연구> SCOPUS 등재 35
-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선정 36
- 경희대학교-삼성전자 산학협력 협약 36
-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센터'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 36
- 2014 경희 Fellow 3명 임명 37

## 3. 실천

### 지구사회봉사단(GSC) 활동

-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 2차년도 사업자 선정 39



- 2014 경희 사랑의 물레산타 39
- 2014 경희대학교 하계·동계 멘토링 캠프 40
- 2014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40
- 연천군 지식멘토링 캠프 40
- 토요일 아이들의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 40
- 청양행복마을 국내봉사단 40

#### 실천 부문 주요 성과

- Peace BAR Festival 2014 41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미소원정대' 베트남 의료봉사 41
- 경희의료원,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41

## 4. 의과학

#### 의료기관 내실 강화

-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개소 43
- 보건복지부 한방의료기관 인증 획득 43
- 보건복지부 치과의료기관 인증 획득 44
-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 44
- 경희 후마니타스 임병원 건립 추진 44

#### 의과학 부문 주요 성과

- 보건복지부 한의약 분야 R&D사업 신규과제 최다 선정 45
- 경희대학교병원, AAHRPP 전면인증 획득 45
-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임상시험 수행능력 A급 기관 선정 45
-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3년 연속 선정 45

## Ⅲ. 세계와 경희

### 1. 국제화

#### 해외 파견 및 교류협력

- 17개국 31개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49
-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49
-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 50
- 동·하계 국제화 연수단 파견 50
- 해외 대학 연수단 초청 50

국제화 부문 주요 성과

- 제17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51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선정 51

IV. 창조와 도약

1. 행정·복지·인프라

행정

-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 발표 55

복지·인프라

-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 2동 완공 56
-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Info21' 추진 56
- 공과대학 '공학실험동' 리모델링 완료 57
- 국문 홈페이지 개편 57

2. 대학문화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

- 2014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59
- 2014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59
- 대학 초청 이사진 간담회 '경희의 현황과 전망' 60
- APAIE 총장 라운드테이블 61
- 미래고등교육포럼 61

기부문화 확산

- '미래대학' 지원할 미래위원회 활동 본격화 62
- 윤영석 동문, 발전기금 2억 원 기부 62
- 김철희 경영대학원 재학생,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62

대학문화 부문 주요 성과

- 개교 65주년 기념행사 '경희의 열과 미래, 담대한 변화의 전위에서' 63
- <문화세계의 창조> 복간본 발행 63
- 2014학년도 공동 입학식 63
- 경희교육포럼 '경희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고, 내일을 그리다' 64

- 총장 - 후마니타스칼리지 북토크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64
- 장애학생 학습권 확대를 위한 총장과의 대화 65
- 총학생회 주최 '총장과의 대화' 65
- 제40회 독서토론회 기념 조인원 총장 초청 북토크 65
- 경희대학교 송년회 'Magnolia 2014' 65

### 3. 전진하는 경희

#### 체육부 선전

-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남대부 단체전·여대부 개인전 금메달 67
- '2014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 준결승 진출 67

#### 학생 수상 소식

- 제임스 후퍼·이유민·권예하·김신중·한재훈 학생, '웃는 사자상' 수상 68
- 임진웅·양유진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68
- 고상문·김영도·서지혜·추현실·허경준 졸업생, 매그놀리아 인증제 1호 68
- 박희수·이민규 학생, 전국 대학생 모의 UN회의 대상 수상 69
- 유영상 학생, 보건복지부 행복나눔인상 수상 69
- 손지훈 학생,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수상 69
- 재학생·동문 등 5명, 2015년 신춘문예 6개 부문 당선 69

###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72
- 총장 연설문 74
- 통계로 본 경희 2014 96
- 경희대학교 기구표 97



## “경이로운 경희”의 꿈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잊고 있던 근본적 질문을 붙잡고 있습니다. 관행과 탐욕, 무책임이 낳은 총체적 부조리 앞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함께 성찰하며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 구성원들도 반성과 각오를 표출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진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며 스승의 날을 반납하고 교육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원인 중 하나가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성이었습니다.

경희는 2014년 개교 65주년을 맞아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를 되새겼습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문화세계’가 구현됐다면, 그리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이 어우러져 지구공동사회를 건설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폭력과 갈등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양극화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경희가 더 나은 대학, 세계적 명문을 추구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또 엄연합니다. 대학이 살아야 인류가 살기 때문입니다. 경희가 학술기관일 뿐만 아니라 공적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문과 학문의 연계, 학술과 실천의 결합, 대학과 문명의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경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입니다.



개교 6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미래리포트'를 기획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비롯해 소셜 픽션(Social Fiction),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 토론회, 미래연표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경희미래리포트'는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대학의 요건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립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의 의견이 대학의 주요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1만 4천여 학생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대학의 본질은 ‘학문 정신’, ‘인간적 성숙’,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입니다”, “‘교육의 가치’, ‘학문의 탁월성’,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등 대학 본연의 가치를 미래대학의 평가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대학과 국가, 인류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현실 인식은 ‘절규’에 가까웠지만 50년 뒤 미래에 대한 상상은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의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학술과 실천의 탁월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양과 전공, 순수학문과 실용학문의 조화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융복합 신학문을 창출해,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인류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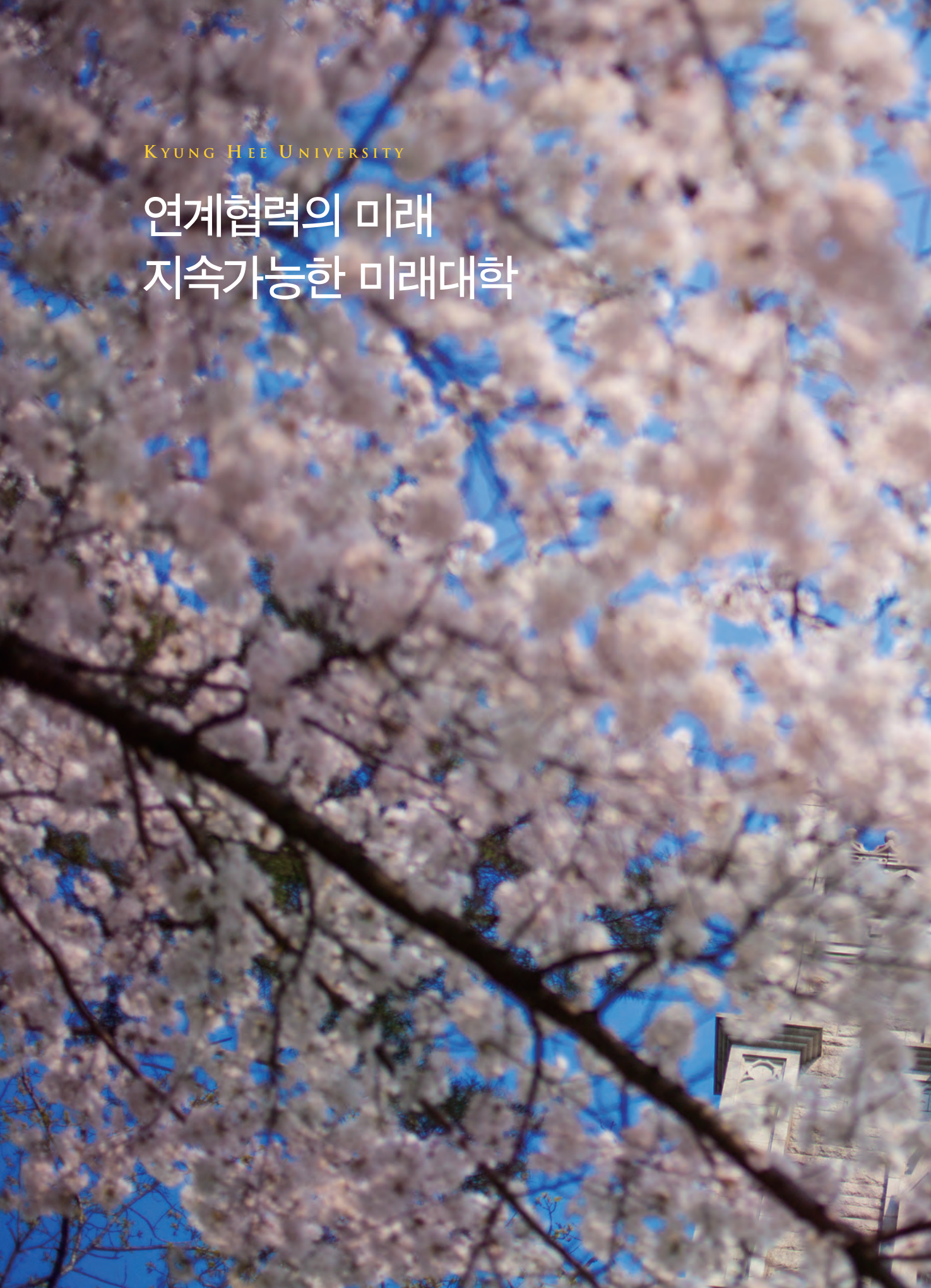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KYUNG HEE UNIVERSITY

연계협력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대학







# ‘세계적인 미래대학’ 향한 연계협력·인프라 구축

2015년을 맞으며, 경희는 연계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미래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4년 하반기부터 관·산·학 협력과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내며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대학의 핵심가치를 추구하고 교육, 연구, 실천의 탁월성을 만들어온 결과, 외연 확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2015년에는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착공을 시작으로 연계협력 인프라를 강화해 내적으로 탁월성을 다져가고, 외적으로 ‘외연 확대의 역동’으로 더 나은 경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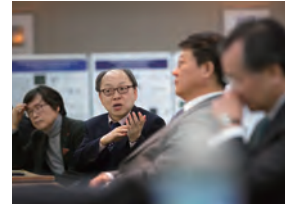


###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안) 발표

경희는 2011년,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으로 교내외 연계협력을 통한 클러스터를 계획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세계적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도약하고, 학술과 실천이 결합된 경희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세계적인 대학'을 위한 역동성을 살려내기 위해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클러스터 운영 방안을 담은 추진(안)을 마련했다.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안)'은 2014년 연말, '매그놀리아(Magnolia) 2014'에서 발표됐다.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에는 '클러스터 발전방향 수립 워크숍'과 '바이오헬스 연계협력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클러스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조인원 총장은 '클러스터 발전방향 수립 워크숍'에서 "대학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기업, 정부, 사회, 세계와 상생할 수 있는 자생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학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희는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기획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 경희의 기존 역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학,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긴밀한 교류협력을 이뤄나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 총장은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구성원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만들어나가는 한편, 사회와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가치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 추진(안)'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참여 교원과 클러스터별 디렉터 선정과 함께 추진사무국을 구축한다. 이후 클러스터 분류에 따른 추진 전략과 재정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적 석학,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클러스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더십과 연계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한규 국제대학장은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며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클러스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광희 생명



과학대학장은 “생명과학대학은 대학원 과정인 생명공학원을 만들면서 단과대학에 소속된 모든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더니 자연스럽게 학과 간 교류협력이 생겼다”며 “학과를 넘어서는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핵심주도자와 함께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 연계협력 워크숍’에서는 의과대학, 이과대학, 동서의학대학원,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생명과학대학,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서울과 국제캠퍼스, 의료기관 교수와 학생이 모여 바이오헬스 융복합 연구 사례를 공유한 뒤, 새로운 융복합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연구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연계협력의 사업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경희대학교 석좌교수(Eminent Scholar) 겸 하버드 의대 교수인 장익경 박사는 ‘의학과 혁신기술 통합센터(CIMIT)’ 사례를 들려주며 “이 센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산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탁월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융복합,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 의료기관 구성원이 교류하고, 연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손영숙 유전공학과 교수는 “대학과 병원의 기초, 임상 교수가 함께 코워킹(Co-work)하면서 얻는 부분이 큰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통”이라며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소가 갖춰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국 경희대 바이오의료기 개발센터장은 “서울과 국제캠퍼스는 거리 문제로 교류가 어려워 어느 교수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교수들의 기술, 연구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새로운 융복합 분야 창출은 물론, 기존 연구를 특화시키고 대형화, 지속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조민형 산학협력단장은 “교수 개인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하다가 지원이 끝나면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클러스터가 운영되면 이러한 연구를 지속해 사업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희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기존 역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학,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긴밀한 교류 협력을 이뤄나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학술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착공

학술경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의 건축 인허가가 완료돼 첫 삽을 뜨게 됐다. 서울캠퍼스는 Space21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대운동장 행복비수숙사(공공기숙사) 사업의 인허가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이 지연됐으나 2014년 12월 12일,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 허가가 완료돼 착공을 준비 중이다. 국제캠퍼스는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 2010년도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 허가가 완료된 상태로, 건축 변경만 허가받으면 된다. 공간 계획이 확정된 종합체육관은 건축 변경을 허가받고 시공업체를 선정, 2015년 1월 착공에 들어갔다.

경희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최선의 교육·연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Space21 사업을 단





계적으로 추진한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한 1단계 사업에는 서울캠퍼스의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국제캠퍼스의 공과대학, 외국어대학, 종합체육관이 포함돼 있다. 2단계로는 글로벌광장과 글로벌타워 신축,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조인원 총장은 총학생회 주최로 2014년 11월 19일 열린 ‘총장과의 대화’에서 Space21과 관련해 “부족한 교육 공간과 연구·실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Space21이 일정대로 추진된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부족한 실험·실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울과 국제캠퍼스 모두 이 공계열 공간 신축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한 조 총장은 “현재 공간·재원 계획을 수립 중인 글로벌타워 신축이 확정되면 부족한 교육 공간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사업과 관련해 구성원 협의를 마친 서울캠퍼스는 2013년 8월 28일, 도시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서울시에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인허가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동대문구청에 제출, 행복기숙사 건축 인허가를 요구했고, 대학은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Space21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2014년 10월,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이후 행정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인허가를 승인받았다. 신축 건물들은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주변에 배치된다. 이 건물들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내부와 외부, 건물과 건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 건물 사이에 열주 회랑·중정 등을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국제캠퍼스는 종합체육관이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외국어대학관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용 인원 2,000여 명 규모의 실내 경기장으로 이뤄진 종합체육관은 학생회관 뒤편(생명과학대학관 맞은편)에 신설된다. 외국어대학은 증축이 논의됐으나,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육환경문제가 거론되면서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외국어대학, 우정원 사이에 교수연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이 변경됐다. 공과대학은 전자정보대학 옆 야구장 부지에 신축될 예정이다.



#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개교 65주년을 맞은 2014년,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공감과 합의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탐욕과 무책임의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 불씨를 찾기 위해 경희 구성원은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를 되새기며 대학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했다. 그리고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문명사회에서 대학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탐색했다. ‘경희미래리포트’와 재학생 설문조사, ‘경희미래위원회’를 통해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여정을 시작했다.



### ‘경희미래리포트’ 준비 모임 출범

경희는 6월 20일, ‘경희미래리포트’ 준비 모임 출범식을 갖고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나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출범식에서 조인원 총장은 경희의 미래가 구성원의 창의적인 상상 속에서 발아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창조적인 사유로 나아가는 것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경희의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에서 소개된 책(다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 시공간 오디세이(Cosmos : A Spacetime Odyssey)>이다. 우주의 원리를 인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시각적 망상에 빠진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고, 닫힌 사유의 감옥을 벗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 총장은 “경희가 보다 나은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각의 망상으로부터 탈출해 시대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사유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주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탐구를 요청하는 열린 공간이자 현실이듯, 경희 역시 하나의 우주로서 미래 세계를 향한 상상과 성찰이 요청된다. 따라서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과정 자체는 미래를 향한 상상의 여정이며, 진정한 미래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조 총장은 ‘경희미래리포트’가 경희만을 위한 경희가 아니라 이러한 열린 성찰과 창의적 정신을 토대로 하는 보편적 성찰의 힘을 통해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경희미래리포트 준비 모임에는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참여한다. 준비 모임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학과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래리포트 준비 과정을 ‘성찰과 실천의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6월, 파일럿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964년 개교 15주년을 기념하면서 당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50여 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미래리포트 추진 계획을 소개한 김재용(경영학부 12학번) 학생은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구성원이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모여 경희미래리포트라는 하나의 실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희미래리포트’ 파일럿 설문조사 결과

경희는 개교 65주년 기념사업으로 ‘미래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대학의 새 모습을 담아 낼 ‘경희미래리포트’는 좁은 의미의 대학 혁신론을 넘어, 국내외 대학사회가 참여하는 지구적 교육혁신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찰과 실천의 축제’이다. 그 첫 번째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재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 문항은 미래대학의 평가지표, 대학의 본질, 2064년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 2064년 명문대학의 가치와 조건, 저항적 자퇴에 대한 의견, 한국 대학이 당면한 문제, 한국 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기업의 대학 인수 운영, 남북통일, 세월호 사건 이후 달라진 점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대학의 평가지표를 묻는 문항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의 가치, 학문의 탁월성,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등 대학 본연의 가치를 평가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 교육의 창의성, 강의의 우수성, 대학 간의 국내·국제적 연대, 학술적 명성이 높은 교수진 등도 미래대학 평가지표로 선택됐다. 대학의 본질에는 학문 정신, 인간적 성숙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꼽은 학생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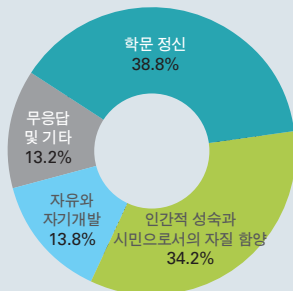
### ‘경희미래리포트’ 포커스 그룹 인터뷰·심층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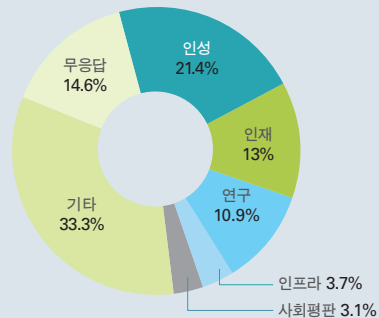
‘경희미래리포트’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토론회가 12월 23일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열렸다. 경희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대학과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도입해 미래리포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파일럿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소셜 픽션(Social Fiction, 특정 주제를 놓고 함께 상상해보는 집단 토크), 전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인원 총장과 학생, 교수,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미래리포트 샘플설문분석 결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래리포트 설문조사에는 구성원 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미래리포트사무국에서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은 나, 한국, 인류, 경희, 대학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성찰해 더

### ‘경희미래리포트’ 파일럿 설문조사 결과

Q. 대학의 본질, 대학다움이란?



Q. 2064년 명문대학의 가치와 조건은?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는 65개의 질문으로 이뤄져 있다. 미래리포트사무국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토론회에서 구성된 설문조사 중 400명의 응답결과를 추출해 샘플설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 토론회에 참여한 정인영(정보디스플레이 11학번)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는 50년 후의 미래를 듣고 생각을 나누면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성금캠페인 통합기구 ‘경희미래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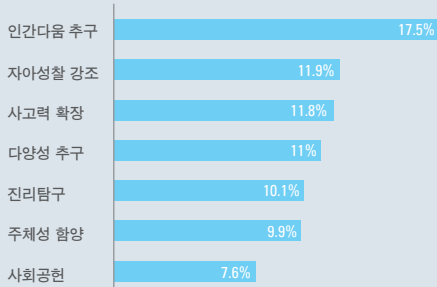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금캠페인 통합기구 ‘경희미래위원회’가 9월 26일 출범했다. ‘경희미래위원회’는 거고적 성금캠페인을 통해 학술적 탁월성과 지구적 실천의 결합, 그리고 이를 통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적 함의를 갖는 학술세계를 열어가고자 하는 경희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희미래위원회’는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원, 성금캠페인 선도,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태원 경희미래위원회 사무총장은 “경희의 창학 정신과 미래비전에 공감하는 동문, 학부모, 국내외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경희미래위원회는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경희의 담대한 꿈과 지구적 신뢰의 여정에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도준(의학과 72학번, 동화약품 회장) 동문은 “그간 경희대학교는 ‘대학다운 미래대학’,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의 길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위상이 높아졌다”고 전한 뒤 “경희미래위원들이 이를 지원한다면 경희의 꿈이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미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경희 발전을 적극적으로 성원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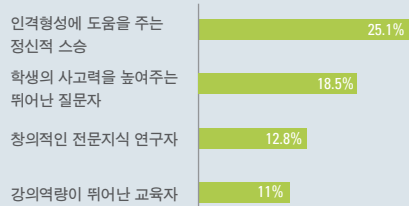
경희미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조인원 총장과 최신원(경영학과 72학번, SKC 회장) 동문, 김성호(신문방송학과 65학번) 총동문회장, 윤도준 동문이 위촉됐다. 재계·의료·문인·언론·문화예술·교육·체육계 등에서 초빙한 80여 명의 인사들은 고문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 ‘경희미래리포트’ 샘플설문분석 결과

Q.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Q. 미래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KYUNG HEE UNIVERSITY

# 학문과 평화







A I S S A N C E

# 교육

2014년 경희교육은 특성화에 주력했다. 국제캠퍼스 건립을 추진한 1970년대부터 서울과 국제캠퍼스를 본·분교 개념이 아닌 각기 특성화된 종합캠퍼스로 발전 시켜온 경희는 학과 특성화도 함께 추진해왔다. 학문 간, 전공 간 차이를 인정하는 학과 특성화를 통해 '학술경희'의 미래를 만들어왔다. 그 결과, '대학 특성화 사업(CK)'에 선정됐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과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2,838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해 상위 200위 대학을 발표하는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2013년보다 두 배 많은 학과가 이름을 올렸다.



## 대형 국책사업 선정

###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CK)에 2개 사업단이 선정, 매년 17억 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은 연간 10억 원,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단'은 연간 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은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가 융합해 국제화 교육 발전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단'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와의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시공간 빅 데이터의 생산, 분석, 종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우수' 선정

교육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별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으로 경희는 3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서 경희는 논술과 수능 위주의 신입생 선발에서 벗어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희는 논술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지방 학생을 위한 전형을 설게해 정원 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고, 학업적성면접도 폐지했다. 김현 서울캠퍼스 입학처장은 "이번 최우수 대학 선정은 교사들로부터 고교와 연계가 잘된 대학, 고교연계형 대입전형을 충실히 운영한 대학으로 평가받아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 석학 특강

### 2014 경희 지적 학교



‘2014 경희 지적 학교’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진행됐다. 집중강좌코스라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경희대 석좌교수(Eminent Scholar)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 교수는 ‘누가 미래정치를 말하는가?’를 주제로, 철학, 정신분석학, 정치학에 걸친 자신의 사상을 현대사회와 접목시킨 내용을 강연했다.

지젝 교수는 “분리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현재 상태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급진적인 정치가 아니라 법의 조항 하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 등 작은 부분부터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은 성공의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강연 마지막 날에는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돼 지젝 교수와 청중 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앞선 강연에서도 청중은 슈퍼에고,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지젝 교수가 그의 책이나 강연 등에서 자주 언급해온 주제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총 5일간 강연에 모두 참석한 청중은 지젝 교수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 명사 특강,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 교수 초청



명사 특강이 ‘우드로 윌슨 스쿨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12월 16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교내외의 연계협력을 통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운 경희는 이번 특강에서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우드로 윌슨 스쿨 사례를 구성원과 공유해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연사로 미국 프린스턴대 우드로 윌슨 스쿨 석좌교수 및 정치학과 교수이자 경희대 석좌교수(Eminent Scholar)인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를 초청했다.

이날 아이켄베리 교수는 “21세기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는 세계관을 심어줘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학제적 융복합 접근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경희대가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미래비전을 갖고 전진하는 세계 몇 안 되는 대학 중 하나”라고 말한 아이켄베리 교수는 경희에서 준비 중인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014 석학 초청 특강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



‘2014 석학 초청 특강’이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청운관에서 진행됐다. 특강에서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 겸 경희대 석좌교수(Eminent Scholar)는 ‘21세기에 다시 보는 독립사상’을 주제로, 한국의 독립사상이 중국 중화(中華)질서와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 어떤 진화의 여정을 열었는지 되짚으며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길을 제시했다.

강연 첫날, 이정식 교수는 “삼국시대에 독립국이 세워졌지만, 고려가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등 종속관계가 형성된 때부터 완전한 독립국이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근세사에서 독립사상의 태동을 찾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민족에게 독립사상을 처음 전파한 사람으로 이 교수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홍대용을 꼽았다. 홍대용은 지구가 둥글다는 지원론과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한다는 지전설 등을 통해 만국평등론과 인간사회의 평등론을 전개했다.

이정식 교수는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독립운동은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밝힌 그는 한국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강조한 뒤, “독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한국의 발전을 되돌아본다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학 초청 특강’은 경희대학교가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실천인을 강사로 초빙해 국가와 인류사회의 더 큰 미래를 모색하는 ‘성찰과 창조’의 장이다.

### 2014 석학 대담 시리즈

‘2014 석학 대담 시리즈’가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7월 7일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에서 열렸다. 경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을 대담자로 초청했다. 대담자로 마이클 푸엣(Michael Puett) 하버드대 교수(경희대 인터내셔널 스칼라)와 존 리(John Lie) 버클리대 교수(경희대 인터내셔널 스칼라), 유종성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홍콩 등 다양한 국적의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 참여 학생과 경희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대담자들은 동북아시아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이 리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존 리 교수는 “한국은 일본, 중국과 달리 비교적 많은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 평화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한국의 리더 역할을 강조했다.



## 교육 부문 주요 성과

###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8개 학과 상위권



‘2014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약학, 재무·회계학, 농·임학,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커뮤니케이션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등 8개 학과가 상위권에 올랐다. 약학은 51~100위권, 재무·회계학은 101~150위권, 농·임학,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커뮤니케이션학, 토목공학, 화학공학은 151~200위권으로 평가됐다. 2013년 같은 평가에서 농·임학, 생물과학, 약학, 재무·회계학 등 4개 학과가 200위권에 랭크된 경희는 2014년, 그 두 배인 8개 학과를 전 세계 상위 200위권 학과로 성장시켰다. 약학은 51~100위권에 랭크됐다. 국내 대학 4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지난해와 같은 101~150위권을 유지한 재무·회계학의 국내 순위는 5위를 기록했다. 전기·전자공학, 지리학, 커뮤니케이션학, 토목공학, 화학공학은 2014년 처음으로 2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리학은 국내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해 강세를 보였다.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는 30개 학문 분야별로 200위까지 발표된다. 평가 항목은 학계 평가, 졸업생 평판도, 교수당 논문 인용 수, 논문인용지수(H인덱스) 등이다. 2014년에는 전 세계 2,838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 ‘QS 아시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평가 선전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 생명과학·의학, 인문·예술, 사회과학·경영, 자연과학 분야에서 아시아 100위 안에 들었다. 특히, 생명과학·의학 분야는 아시아 39위(국내 7위)를 차지했다. 인문·예술 분야는 아시아 52위(국내 8위), 사회과학·경영 분야는 아시아 63위(국내 10위), 자연과학 분야는 아시아 91위(국내 9위)에 올랐다.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학술 문화 진흥에 주력해온 경희는 지난 2012년부터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더 나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학술 부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학의 근본 가치라는 판단에서다. 2012년 10월부터 부총장 주재 학과 간담회를 통해 학장과 학과장은 물론 소속 교수와의 소통을 통해 각 학과 및 단과대학(원)의 사업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각 학과 및 단과대학(원)의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 전공별·계열별·개인별 연구지원제도를 수립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에도 수차례 총장·부총장 주재 학과 간담회를 실시해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사 국가고시 100% 합격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제66회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3년도 치전원 졸업생 77명이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고, 함께 시험을 치른 2010학년도 치과대학 졸업생 1명, 2012학년도 치전원 졸업생 1명도 합격했다.

### 2013년 행정고시 역대 최다 합격생 배출

2013년 행정고시에서 재학생 4명, 졸업생 4명 등 총 8명이 최종 합격했다. 경희는 2012년보다 합격자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대학별 행정고시(기술직 제외) 합격자 배출 대학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특히,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달리, 2013년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재학생들은 평균 2년~2년 6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해 결실을 거뒀다. 경희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50명 정원의 행정고시반을 운영 중이다. 고시반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기숙사나 장학금, 전용 열람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모의시험, 스터디 모임, 특강 등을 제공해 고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영학부·영어학부·정치외교학과 최상위 선정

경영학부, 영어학부, 정치외교학과 등 3개 학과가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영어학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고, 정치외교학과는 전국 47개 학과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내 탁월성을 입증했다. 간호학과와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공학과는 상위권, 중국어학과와 행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파공학과, 응용물리학과는 중상위권에 올랐다.



경희는 교수역량과 재정지원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치외교학과는 전임교원 1인당 국제학술지 논문 수가 전국 47개 대학 중 가장 많았다. 전임교원 1인당 자체 연구비 순위는 2위를 차지했다. 정치외교학과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7.3명으로 2위에 올라 교육환경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1인을 기준으로 연간 306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장학금 혜택이 좋은 학과'로도 선정됐다. 경영학부는 전임교원 1인당 자체 연구비와 전임교원 1인당 국제학술지 논문 수 순위에서 각각 2위와 6위를 기록했다. 영어학부도 전임교원 1인당 한국연구재단 논문 수와 전임교원 1인당 국제학술지 논문 수, 전임교원 1인당 자체 연구비 순위에서 5~7위에 올라 교수의 연구 역량과 재정지원에서 강세를 보였다.

### 한외과대학, 한외학교육 평가인증 '5년 인증' 획득

한외과대학이 한외학교육 평가인증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받았다. 한외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외학교육 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7년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의 졸업자는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경희대 한외과대학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한외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았다.

### 간호과학대학,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간호과학대학이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해 간호학 프로그램의 교육 능력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간은 2020년 6월 10일까지다. 의료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주어진다.



# 연구

QS 아시아대학평가와 라이덴랭킹, 네이처 퍼블리싱 인덱스 등 최근 발표된 대학 평가에서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해온 경희의 노력이 학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전문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공동 실시한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경희의 졸업생 평판도와 논문당 피인용 수 순위가 2013년보다 각각 5계단, 18계단 상승해 43위, 68위를 차지했다. 교원당 논문 수와 교원당 학생 수 순위도 상승했다. QS 아시아대학평가 종합 순위는 37위, 국내 대학 8위(종합대학 6위)다. 2013년 처음 아시아 30위권에 진입한 후 순위를 유지했다.

## 경희 연구력, 질적 수준 향상

###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 30위권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37위, 국내 대학 8위에 올랐다. 2013년 처음 아시아 30위권에 진입한 후 순위를 유지했다. 경희의 졸업생 평판도와 논문당 피인용 수 순위는 2013년보다 각각 5계단, 18계단 상승해 43위, 68위를 차지했다. 교원당 논문 수와 교원당 학생 수 순위도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경희의 학술적 탁월성과 높아진 위상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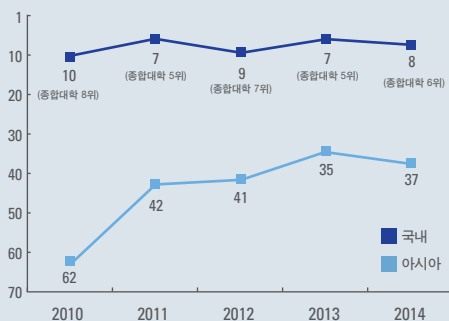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 졸업생 평판도에서 경희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졸업생 평판도 순위는 2012년 81위에서 매년 33계단, 5계단 올라 2014년에 처음으로 40위권에 진입했다. 졸업생 평판도 상승은 졸업생의 업무 능력과 이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졸업생 평판도 평가는 ‘우수한 직원의 출신 대학을 꼽아 달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기업 인사 담당자 8,003명이 참여했다.

교원당 학생 수 역시 순위가 상승, 2013년보다 5계단 오른 28위를 차지했다. 그간 경희는 대학의 핵심가치인 교육과 연구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교원 수를 확대해왔다. 교원 수는 최근 6년간(2008~2013년) 269명이 늘어 2013년 1,482명으로, 교원확보율이 103.55%에 달한다. 교원당 학생 수는 졸업생 평판도와 함께 교육 부문을 평가하는 지표다.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두 가지 지표 모두 순위가 상승해 교육의 수월성을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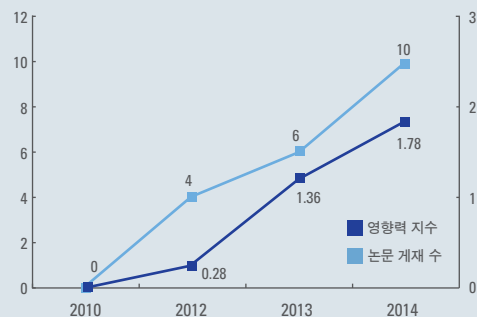
경희는 ‘QS 아시아대학평가’의 연구 부문 2개 지표, 논문당 피인용 수와 교원당 논문 수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질적 평가 지표인 논문당 피인용 수는 2013년에 32계단 오른 후, 2014년 18계단 상승했다. 논문당 피인용 수는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국제논문 수는 전년대비 17.6% 증가해 교원당 논문 수는 2013년보다 28계단 상승했다.

‘QS 아시아대학평가’는 아시아 고등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17개국 491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2014 QS 아시아대학평가 순위



〈네이처〉 및 〈네이처〉 자매지 논문 게재 수 및 영향력 지수





### ‘2014 라이덴랭킹’ 국내 대학 순위 3계단 상승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2014 라이덴랭킹(Leiden University)’의 국내 대학 순위가 2013년보다 3계단 상승했다. 대학별 논문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10% 논문비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라이덴랭킹’에서 경희는 인용 빈도 상위 10% 논문비율 6.5%로, 국내 대학 중 9위를 차지했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구·환경과학, 생명과학, 수리·컴퓨터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5개 분야에서 국내 10위 내에 랭크됐다. 특히, 생명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각각 5위를 기록해 최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라이덴랭킹’은 학술정보서비스기업 톨슨로이터 데이터베이스에 4년간(2009~2012년)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013년까지의 피인용 수를 집계해 논문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 ‘네이처 퍼블리싱 인덱스’ 세계 순위 32계단 상승

네이처와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논문을 기초로 산정, 논문의 공저자를 파악해 해당 대학 기관의 연구 역량을 평가한 ‘네이처 퍼블리싱 인덱스(Nature Publishing Index)’에서 경희의 순위가 상승했다. 국내와 세계 순위가 각각 3계단, 32계단 큰 폭으로 뛰어, 국내 10위, 세계 82위에 올랐다. 영향력 지수는 2011년 0.28에서 2013년 1.78로 6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는 2011년부터 <네이처>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었다. 경희가 <네이처>와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한 논문 수는 2011년 4건, 2012년 6건, 2013년 10건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 78계단 순위 상승

‘2014 중국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에서 2013년보다 78계단 상승한 372위에 올랐다. 국내 대학 순위는 7위다. 2010년 497위로 50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경희는 지난 5년간 세계 순위가 125계단 상승한 데 힘입어 2014년 처음 300위권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는 <네이처(Nature)>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된 논문 수가 증가하고, SCI(E), SSCI 논문의 양적 지표와 피인용 지표의 점수, 순위가 모두 상승해 학술 역량의 양적·질적 성장이 확인됐다. SCI(E), SSCI 논문 수를 평가한 지표 순위는 2012년 400위권에서 2013년 206위로 200계단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한 후, 2014년에 14계단 올라 192위(국내 5위)를 기록했다. 우수한 연구 성과로 피인용 지표는 2014년 처음 점수를 획득, 세계 397위, 국내 6위에 올랐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 점수를 전일제 교수 수로 나누어 환산해 학술 역량의 양적 성장을 반영한 지표 순위도 30계단 올라 31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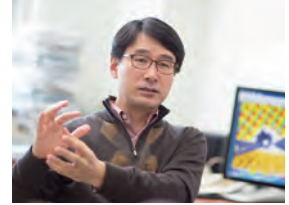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는 교육과 교수의 질, 연구성과, 학문역량지수 등 학술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의 질은 노벨상 또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상한 동문 수(10%), 교수의 질은 물리, 화학, 의학, 경제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거나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 수(20%), 21개 학문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교수 수(20%)로 평가된다. 연구성과는 최근 5년간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 수(20%)로 점수를 매긴다.

## 연구 성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

### 권영균 교수 <네이처 포토닉스> 논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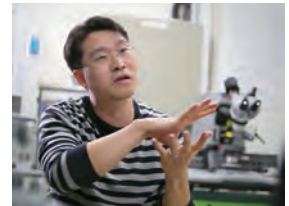
물리학과 권영균 교수 연구팀이 전자회로와 포토닉스(광자를 이용한 기술)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소자를 개발,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2014년 3월호에 논문을 게재했다.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공동연구)으로 3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권영균 교수를 비롯해 미국 노스이스턴대의 기계산업공학과 정영준 교수(2013년 경희대 인터내셔널 스칼라(S))와 물리학과 스와스틱 카(Swastik Kar) 교수, 2014년 2월 경희대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소라 학생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탄소 나노튜브와 실리콘으로 이뤄진 접합 소자에서 독특한 비선형 광전류 특성을 발견하고,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권영균 교수는 “전압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전기 신호가 급격히 변해 장치가 신호 전달 여부를 결정하는 온/오프(on/off)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광전자 트랜지스터와 논리회로,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디지털카메라의 이미지센서 등 다양한 광전자 응용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유재수 교수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 논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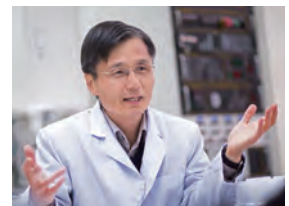
전자-전파공학과 유재수 교수 연구팀이 간단하고 저렴한 패턴 공정인 소프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해 무반사 생체모방 나방 눈(Moth-eye) 구조를 최적화 설계하고, 이를 폴리디메틸 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PDMS) 필름 표면에 제작했다. 제작된 모스아이 나노구조 PDMS 필름은 우수한 무반사 특성으로 유리와 같은 투명 물질의 투과성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소수성 표면을 갖기 때문에 물방울이 퍼지지 않고 굴러 떨어지면서 표면에 부착된 먼지와 오염물질이 씻겨나가도록 하기도 한다. 이 필름은 탈부착이 쉬워 유리, 플라스틱과 같은 투명 기판을 이용하는 다양한 광전소자에 응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연구팀은 이를 유기태양전지 유리기판에 응용해 태양전지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연구 결과는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6월호에 발표됐다.



### 최석호 교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게재

응용물리학과 최석호 교수팀이 높은 광반응 성능을 지닌 그래핀 광검출소자를 개발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014년 2월 12일자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전연구)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최석호 교수와 김성 교수, 김창오 박사 후 연구원 등 경희대 응용물리학과 나노구조 및 디스플레이 연구실팀과 나노과학기술원 황의현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2013년, 그래핀만으로 이뤄진 반도체 소자를 개발해 세계적 나노과학 저널 <ACS Nano> 5월 21일자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한 최석호 교수는 당시 개발한 ‘올(All) 그래핀 p-n 수직접합 터널링 다이오드’를 광검출소자에 적용해 이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최석호 교수팀은 그래핀



p-n 수직접합 광검출소자의 광반응 성능이 파장영역에 따라 기존의 실리콘 소자나 인듐갈륨 비소 소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0.4~1.0 A/W)을 보이는 것을 규명했다.

광검출소자는 광신호를 감지하는 소자로 넓은 파장영역에서 고감도가 요구되는 이미징 (Imag-ing), 감지(Sensing) 및 광통신 기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이다. 최석호 교수는 “올 그레 핀 p-n 수직접합 터널링 다이오드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한 영상기기의 광검출소자뿐 아니라 투명하고 휘어지는 LED와 태양전지 등 다양한 차세대 광전자소자에 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신소재인 그래핀을 이용한 연구는 누가 먼저 새로운 개발을 하는가의 시간 싸움”이라면서 “이미 그래핀 다이오드 관련 기술로 국내외 특허를 다수 보유한 만큼 응용연구를 계속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범준 교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 게재



화학공학과 박범준 교수가 ‘땀구멍 지도(Sweat Pore Map)’를 인식하는 새로운 지문분석 기술을 개발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4월 29일자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 손가락 끝 땀샘에서 나오는 미량의 수분을 감지해 ‘땀구멍 지도’를 만드는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지문 응선 패턴분석에 의존해온 지문분석의 패러다임을 바꿔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5월 8일자 <네이처(Nature)>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100년간 지문분석은 지문 응선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응선을 이용한 방법은 지문분석 시 많은 잠재지문이 필요하고, 종이 등에는 응선이 잘 남지 않아 범죄 수사 증거물 채택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물에 의해 색이 변하는 수변색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미량의 수분을 빠른 속도로 감지하고, 이를 이용해 땀구멍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을 개발, 기존 지문검출에 사용되는 응선법의 한계를 극복했다. 박범준 교수는 “사람마다 다른 응선을 갖고 있듯이, 개개인의 땀구멍 패턴 역시 다르다”고 설명한 뒤, “개인의 땀구멍 패턴을 이미지화해 땀구멍 지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잠재지문의 땀구멍 지도와 비교·대조해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김선국 교수 <나노 리서치> 표지논문 발표



전자·전파공학과 김선국 교수 연구팀이 휘어지는(Flexible)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박막트랜지스터(TFT)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레이저 열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2012년 기존 전자소자의 한계를 극복한 높은 전자이동도와 유연성을 가진 다층 이황화몰리브덴(MoS<sub>2</sub>) 기반의 박막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김선국 교수가 이를 발전시켜 공정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관련 연구 결과는 2013년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IMID)와 국제재료학회(MRS)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2014년 8월 <나노 리서치(Nano Research)> 표지논문으로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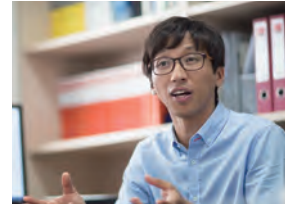
이황화몰리브덴과 같은 2차원 구조를 갖는 칼코겐화합물은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어 ‘차세대 박막트랜지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박막트랜지스터는 접히거나 종이처럼 말 수 있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등에 활용되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로, 고성능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박막트랜지스터의 고성능화를 위해선 전자소자의 동작 속도를 좌우하는 전자이동도를 높여야 하는데, 여기엔 열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방법으로 열처리하면 유연한 기판이 쉽게 휘어지면서 깨진다. 김선국 교수 연구팀은 레이저를 통한 선택적 열처리 기술을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김선국 교수는 “기존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쓰면서 성능이 우수한 플렉시블 기판을 만들어내는 차세대 공정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김형대 교수 <사이언티픽 리포트> 논문 게재

원자력공학과 김형대 교수 연구팀이 비등 열전달 상황에서 나노신소재인 그래핀을 활용하면 열전달 효율과 한계점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그래핀에 의한 열소산 능력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는데, 이 과정에 김형대 교수가 보유한 적외선 열화상 기법이 활용됐다. 연구 결과는 9월 3일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비등은 액체에 열이 전달돼 일정 온도(한계점)에 도달하면 끓어올라 표면에 기포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한계점을 넘어서는 열이 발생하면 열전달 표면이 순간적으로 녹는다. 따라서 비등 열전달을 주요 에너지 전달 원리로 사용하는 화력·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한계점을 높이거나 열을 소산시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그래핀이 기존 물질보다 10배 이상 열전도도가 뛰어나다는 점에 착안, 그래핀을 비등 표면에 적용해 비등 효율을 약 78%, 비등 열전달 한계점을 약 60% 증진시켰다. 김형대 교수는 “그래핀을 열전달 분야에 적용해 기술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집적도가 높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인 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원자력 분야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열이 갑자기 한쪽으로 집중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발전소 운영을 위한 설계와 안전성 측면에서 한계점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김진성 교수팀 <근거 중심의 보완대체의학> 논문 게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김진성 교수 연구팀이 디지털 설진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연구계획서를 <근거 중심의 보완대체의학(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년호에 게재했다. 한방 의료기기 분야의 임상시험 연구계획서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성 교수팀은 디지털 설진기의 임상연구 목적과 진행방법, 주요 평가지표 설정법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진(혀 진단)은 혀에 생기는 설태의 색과 상태 등을 눈으로 관찰해 질병을 확인하는 한의학 고유의 진단방법이다. 그러나 한의사의 주관적 판단과 조명, 날씨 등 환경에 따라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설진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김진성 교수는 디지털 설진기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검증할 것”라고 설명한 뒤, “이번 연구 대상인 디지털 설진기가 정부의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다양한 설진 관련 연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학생 연구 성과

### 이상무 학생, 투명 산화물 반도체의 광센서 가능성 제시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이상무(09학번) 학생이 SCI 학술지 <응용물리학회지(Applied Physics Letters)>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학술지는 응용물리학 분야의 권위지로, 이상무 학생의 논문은 2014년 1월 19일자 온라인판에 소개됐다. 이상무 학생은 InGaO 박막 트랜지스터에 양자점(Quantum-dot)을 코팅했을 때 광전류가 개선되는 것을 밝혀냈다.



이상무 학생은 3학년 때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다. 학부연구생은 교수 실험실에서 세부심화전공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상무 학생은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연구를 통해 전공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어서 전공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학점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 박주현 학생, 선박용 소형원자로에 활용 가능한 연구 결과 발표

원자력공학과 박주현(09학번)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SCI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기울어진 도관 내부의 헬리컬(Helical) 코일의 자연대류 열전달’을 연구한 박주현 학생은 연구 결과를 열과 물질전달 분야 권위지인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즈 인 히트 앤드 매스 트랜스퍼(International Communications in Heat and Mass Transfer)> 12월호에 발표했다.

2013년 복학 후, 진로를 고민하던 박주현 학생은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하고, 학과 산업체 트랙을 이수했다. 전공을 심화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교수들의 조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에도 지원했다. 연구 결과는 한국에너지공학학회지에 게재했고, 당시 연구를 심화시켜 SCI급 국제학술지에 도전했다. 박주현 학생은 “학부생으로서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연구하는 재미를 느끼고 전공을 더욱 깊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 연구 부문 주요 성과

### 박광훈 교수, HEVC 국제표준 특허 등록

컴퓨터공학과 박광훈 교수가 개발한 동영상압축기술이 차세대 고효율 동영상압축기술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국제표준 특허로 등록됐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카이스트에 이어 전 세계 대학 세 번째로 HEVC 국제표준 특허를 확보했다.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HEVC/H.265는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코딩기술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고화질 동영상을 매끄럽게 볼 수 있게 한다. 이 기술은 현재 초고화질 TV(UHD TV), 스마트폰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제표준 채택으로 전 세계 모든 정보기술(IT) 관련 정보 가전에 필수로 탑재될 예정이다.

박광훈 교수는 "공학자는 '최고'가 아닌 '최적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며 국제표준을 선점해왔다. HEVC/H.265 외에도 MPEG-4, VC-1, AVC/H.264 등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해당 표준 규격 관련 핵심 기술을 채택시켰다. 그가 보유한 특허는 국제 95건, 국내 91건에 달한다. 경희대 산학협력단 기준 특허 기술이전 10억여 원을 이루는 성과도 거뒀다. 박광훈 교수는 영상통신 분야의 국제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 세계 표준의 날'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화학공학과 이용택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화학공정소재 분야 과제에 선정됐다. 과제 선정으로 3년간 34억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교수는 희소금속과 유기금속 회수기술을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 분리막을 이용한 회수 공정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분리막 원천기술은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래 신수종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택 교수는 정수·하수처리 및 해수담수 공정에 필요한 차세대 분리막 소재와 공정기술개발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물(水)산업 기술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10월, '제5회 화학산업의 날'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경희대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연구> SCOPUS 등재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언어연구(Linguistic Research)>가 2014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등재, 국제학술지로 인정받게 됐다. 국내 어학분야 학술지가 스코퍼스에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어연구>는 스코퍼스 학술지 선정위원회(CSAB)로부터 "국제학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논문 저자들로 편집위원회 구성돼 있으며, 설득력 있고 명확한 편집 방침을 통해 훌륭한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어연구>는 언어 전반에 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언어학 연구결과의 응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선정

경희대학교가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 대학 부문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44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서울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경희는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을 설치, 운영해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이전 실적을 향상한 부분을 높이 평가 받았다. 2011년 5월,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계기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활성화시킨 경희는 2012년 지식재산권 출원 실적이 2011년보다 1.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술이전 수입료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 표준특허 설계와 기술이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를 통한 매출 증가,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매출 신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술이전·사업화 우수기관'은 공공연구소, 대학,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 활용률과 기술 사업화 수익률을 평가해 선정된다.

### 경희대학교-삼성전자 산학협력 협약

경희대학교와 삼성전자가 10월 30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희는 이번 협약 체결로 산학 협력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융복합 학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경희는 교육, 연구, 실천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사회, 인류와 문명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목표로 해왔고, 교내외의 연계·협력을 통한 클러스터를 준비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희는 2012년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을 수립하면서 인류문명, 미래과학, 문화예술, 바이오헬스, 사회체육 등 5개 중점 분야에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조인원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내외에서 더 큰 교류협력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양 기관의 발전은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김기남 사장은 "오늘 산학협력 협약식은 양 기관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성공적인 산학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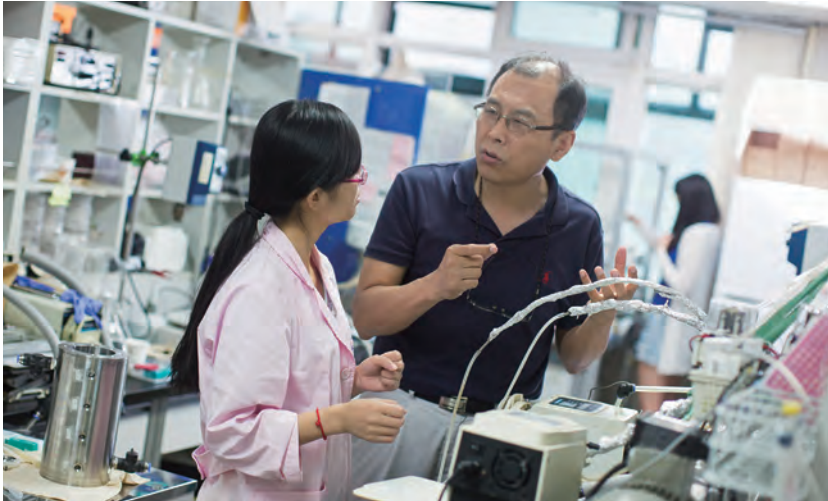


###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센터'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센터(센터장 화학공학과 김우식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4년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공학 분야 센터(Engineering Research Center, ERC)로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최대 7년간 매년 15억 원, 총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센터는 자기조립과 분자인식 기반의 결정 설계 기술 연구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칙적 유동특성을 이용한 결정 기능화 공정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나아가 원천기술을 상용화해 자립적 기능성 결정소재 전문연구센터 완성을 목표로 한다.

경희대 화학공학과는 국내에서 결정화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가 없던 1994년부터



결정화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김우식 교수는 “그동안 결정 고기능화를 연구하고, 기술이전도 해왔다”면서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우리만이 가진 강점을 특화하기 위해 결정 소재 연구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대학을 연구 거점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한 집단 연구 사업으로 이학, 공학, 의과학, 융합 분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 2014 경희 Fellow 3명 임명

‘2014 경희 Fellow’에 호텔관광대학 관광학과 이충기 교수,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김성훈 교수,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유재수 교수 등 3명이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대형사업단 운영과 국책사업 수주를 통해 탁월한 연구 업적을 창출해왔다. 이충기 교수와 김성훈 교수는 이번으로 세 번째, 유재수 교수는 두 번째로 경희 Fellow에 임명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충기 교수는 호텔외식교육협회(CHRIE)에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 한국연구재단의 국내 연구자 연구성과 평가 결과 2위를 차지하는 등 관광 관련 학계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쌓아왔다. 김성훈 교수는 최근 3년간 SCI·SCIE 국제 학술지에 14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창출했다. 유재수 교수는 반도체 초격자 양자계단레이저의 고출력 상온연속동작을 실현시켜 상용화에 가까운 특성을 얻는 데 기여하고, 관련 논문들에 대해 850회 피인용 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SCI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수는 101편에 이른다.

경희 Fellow는 학문적 성취를 존중하는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단과대학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논문 수, 논문 인용지수(F·Impact Factor), 전공분야별 상위 저널 게재, 대외연구비 등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심사해 선정된다. 임명 기간은 2년이며, 임명된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연간 6~9학점으로 조정된다.



# 실천

경희의 실천활동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선정돼 2012년 12월 말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경희는 2차년도 사업 선정으로 캄보디아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모델 '피스 빌리지(Peace Village)' 구축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계 각국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도 펼쳤다. 2014년에는 사랑의 물레산타, 멘토링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도 지속했다.

## 지구사회봉사단(GSC) 활동

###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 2차년도 사업자 선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2차년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꼬로치커면 크나쓰응마을 농촌개발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2012년 12월 말부터 1차년도 사업을 전개해온 경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외 거점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피스 빌리지(Peace Village)' 구축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대학이 발굴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대학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해 현지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년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경희대는 1차년도 사업에서 현지 주민의 자생적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차년도 사업에 선정됐다. 경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 효과에 중점을 뒀다. 교육을 통해 현지 어린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고, 마을주민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피스 빌리지'에서 경희의 가치를 지키며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2014 경희 사랑의 몰래산타

'2014 경희 사랑의 몰래산타'가 12월 24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진행됐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최하고 있는 '몰래산타'는 사회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2007년 시작한 이래 경희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 연말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2014년에는 학생, 교수, 직원, 일반인 266명이 참여, 홀몸어르신 가정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돼 주고, 산타와 루돌프로 변장해 캐럴에 맞춰 춤을 추며 건강과 축복을 기원했다.





### 2014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2014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이 9월 26일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Post-2015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ODA를 이룰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UNAI ASPIRE Kyung Hee 학생단과 타 대학 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UNAI ASPIRE는 UN 산하 고등교육기구 UNAI(UN Academic Impact)에 소속돼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다. 포럼에 앞서 9월 25일에는 서울캠퍼스 녹원에서 평화의 날 기념 '작은 평화 한마당' 문화프로그램도 개최했다.

### 연천군 지식멘토링 캠프



연천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4일부터 5일간 국제캠퍼스에서 지식멘토링 캠프를 진행했다. 한국장학재단, EBS, 연천군과의 협력 사업으로 이뤄진 이번 캠프는 GSC가 교육소외 지역 청소년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지식멘토링사업의 일환이다. 캠프에는 경희대 학생 30명과 연천군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여했다. 경희대 학생들은 멘토가 되어 1대1 상담과 그룹별 학습지도, 문화체험 등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지식 나눔을 실천했다. 참가자들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합숙하며 학년별 그룹을 나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희대는 연천군 지식멘토링 캠프에 앞서 2013년 10월, 연천군, EBS와 연천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18년까지 2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경희대 멘토링 캠프, EBS 공부방 설치 등이 추진된다.

### 2014 경희대학교 하계·동계 멘토링 캠프

2014년 하계와 동계방학에 교육소외지역 전국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다. 하계방학 때 7박 8일, 동계방학 때 6박 7일간 실시된 멘토링 캠프는 대학 전공 소개와 진로 등 진학 프로그램, 청소년의 사고 향상과 다양한 인식 개선을 위한 후마혜움 프로그램, 본인의 꿈과 가치관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특별 프로그램, 시민교육과 글로벌리더 교육, 토론회 등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 토요 아이들의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

교육소외계층과 토요일을 활용한 방과 후 교실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토요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을 시행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수료한 재학생들은 2014년 4월부터 3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서울시 관악구 10개 초등학교에서 문화체험과 현장학습을 돕는 멘토링 활동을 펼쳤다.

### 청양행복마을 국내봉사단

GSC 청양 국내봉사단이 2014년 7월 10일부터 12일간 충청도 청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청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전공박람회와 입학사정관 안내, 마을벽화 그리기 등을 실시했다.

## 실천 부문 주요 성과

### Peace BAR Festival 2014

제33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이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다.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UN이 제정, 선포한 세계평화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Peace BAR Festival은 ‘학술과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모색하는 학술·문화 축제다. 2014년에는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을 주제로 ‘빅 히스토리’ 관점에서 인간과 문명을 새롭게 조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적 실천의 의미를 성찰했다. 행사는 21일 국제캠퍼스 천문대에서 개최된 공개 관측회로 시작했다. 이후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북토크가 이어졌으며, 사전행사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10월 19일까지 감상문, 동영상, 사진도 공모했다.

개회식은 22일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A&D 홀에서 개최됐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평화와 안보는 사회 진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토대”라고 강조한 뒤 평화를 막는 분쟁의 근본 원인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세계의 근원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의 세계는 우주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뒤, “더 나은 지구촌 생존과 번영의 길에 국제관계의 차이를 넘어설 인류의 공유된 철학과 신념, 공적 실천의 토대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우주, 인간, 문명 : 우주관을 통해 본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인간관이 만나 인간과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Peace BAR Festival 2014는 9월 26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북토크로 막을 내렸다. 북토크에서 학생들은 칼 세이건의 저작과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미소원정대’ 베트남 의료봉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미소원정대’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주 년짜현 룡토 지역에서 무료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미소원정대는 2011년부터 매년 여름 베트남 동나이주를 방문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방·치의학과 의사진 24명이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미소원정대는 티엔푸옥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50명에게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했다.

### 경희의료원,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경희의료원이 2014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주카자흐 한국석유공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 경희의료원은 15명의 전문 의료진을 파견했다. 의료봉사단의 단장인 조중생 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첫 방문이지만,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 의과학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2014년,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재정비를 통해 '의과학 경희'의 재도약에 나섰다. 지난 2011년 경희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4월 한방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7월에는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이 치과분야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았다. 문화복지시설과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건립도 추진했다.

## 의료기관 내실 강화

### 한의학임상시험센터 개소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2014년 5월 29일, 한의학임상시험센터 개소식과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인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센터 개소가 의료원 전체의 시너지 창출로 이어지고 의료원의 더 큰 미래의 발판이 돼 더 나아가 한의학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영 한방병원장은 “센터 개소를 통해 한의학의 근거중심 정착, 한의학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임상시험센터는 보건복지부의 국책과제인 한의학 선도 기술 개발사업 ‘한의학 임상 인프라 구축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개소했다. 한의학 관련 연구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이자 국가 지원 최초 개소로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독자적인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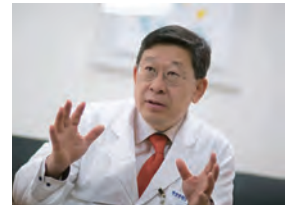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한방의료기관 인증 획득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관리 능력 등에서 우수성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한방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14년 4월 3일부터 4년간이다.

경희대한방병원이 한방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한방의료 질을 향상하고, 두 번째는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해 한방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최도영 한방병원장은 “한의학이 우리나라 전통의학임에도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가 낮아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을 계기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해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4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한방의료기관 인증제는 2013년 말부터 시행 중이다.



### 보건복지부 치과의료기관 인증 획득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이 치과분야 최초로 보건복지부 치과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전체인증기준, 인증필수항목, 영역별 기준에서 모두 '충족' 판정을 받아 8월 7일자로 4년간 유효한 '인증' 등급을 획득했다. 박영국 치과병원장은 "인증기관에 걸 맞는 효율적이고 환자 편의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경희의료원은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을 포함해 3개 병원 모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



경희대학교 청운관과 경희의료원 사이에 문화복지시설(가칭)이 들어선다. 2010년 발표된 '의료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된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가시화됐다. 문화복지시설의 신축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희 암병원 개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공간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둘째, 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구성원에게 휴식,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통해 대학의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학 정문(등용문) 바로 옆인 문화복지시설 부지는 대학의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학생, 교수, 직원 간의 소통과 만남,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결이 이뤄지는 상징적 공간이다. 따라서 건물 설계 시 경희의 역사와 전통, 캠퍼스의 이미지, 미래비전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해 상징성 있는 건물을 설계했다. 사선을 활용해 역동성이 느껴지는 건물로 설계된 문화복지시설에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대학'을 실현하겠다는 경희의 의지가 반영됐다. 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건립 추진

경희 후마니타스 암병원 건립이 추진 중이다. 경희 암병원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암을 넘어서 삶, 조화와 균형의 사회'를 추구하고, 인문학, 예술, 체육 분야가 융합된 치유 프로그램을 진료 및 치료 과정에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연구기관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대학, 대학원, 사이버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암환자를 위한 진료-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

진료와 치유가 결합된 경희 암병원 프로그램은 경희대학교가 보유한 학술적 역량을 치료와 결합시켜 환자의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치유 프로그램은 웃음, 동물, 명상, 마술, 댄스, 글쓰기, 영화, 요리, 음악, 운동,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구성됐다. 환자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힐링투어길'과 암 투병으로 직장을 잃은 환자가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도 도입됐다. 암병원은 경희의 강점인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신의학 '통합 중양학(Integrative Oncology)'도 도입한다. 양한방 협력 하에 근거중심의 학을 기반으로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에 맞춘 협진 의료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암병원은 의료원 전면 좌측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선다.

## 의과학 부문 주요 성과

### 보건복지부 한의약 분야 R&D사업 신규과제 최다 선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4년 한의약 분야 R&D사업에서 18개 과제 중 가장 많은 7개 과제에 선정됐다. 한의과대학 기초 및 임상 교수진은 총 4개 분야 7개 과제에서 선정,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양·한방 융합 기초연구 부문 '양·한방 병용투여를 통한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 및 간암 신규 치료전략 개발(연구책임자 이장훈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1내과 교수)'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 부문 '한약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연구책임자 정우상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2내과 교수)' 과제는 각각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R&D사업은 양·한방 융합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 7개 분야, 18개 과제에 총 4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희대학교병원, AAHRPP 전면인증 획득

경희대학교병원은 2014년 6월 14일, 임상연구 분야의 국제인증기관인 AAHRPP(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피험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으로부터 전면인증을 받았다.

AAHRPP는 2001년 미국 정부의 임상연구 안전·윤리 관련 7개 부처가 후원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보호를 위해 연구기관의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임상시험 수행능력 A급 기관 선정

경희대학교병원과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수행능력을 평가에서 A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부터 임상시험기관 차등관리를 도입,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항목과 주기를 차별화하고 있다. 가장 우수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5년마다 1회 수행능력을 점검받게 되고 보통인 B등급은 3년에 1회, 미흡인 C등급은 연 2회에 걸쳐 수행능력을 점검받는다.

###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3년 연속 선정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로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실 기반 자살예방사업'에도 2년 연속 선정되며,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YUNG HEE UNIVERSITY

# 세계와 경희







# 국제화

경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캠퍼스 국제화를 실현하고 있다. 경희가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은 78개국 498개교에 이른다. 이들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매년 많은 학생들이 해외 자매대학으로 파견 및 초청되고 있다. 탁월한 국제화 역량을 인정받아 경희는 2014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에서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장학생을 배정받았다.



## 해외 파견 및 교류협력

### 17개국 31개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경희대학교는 78개국 498개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2014년 12월 기준)하며 해외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교육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2014년에는 17개국 31개 대학과 신규·갱신 협정을 체결했다. 서울캠퍼스는 미국 남유타주립대, 싱가포르 경영대, 베트남 달랏대, 호주 그리피스대, 인도네시아대, 스웨덴 린네대, 중국 충칭대, 시안교통대, 국제캠퍼스는 미국 웨인주립대, 터키 이스탄불기술대, 스페인 카밀라호세셀라대, 미국 테네시공과대, 중국 도문시, 길림대 주해캠퍼스, 러시아 톰스크기술대 등과 협정을 맺었다. 매년 교류협정을 체결한 자매대학들과 상호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해외 수학 경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다양한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에게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연수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대학 간 교류협정을 통해 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 학생을 파견 및 초청하는 제도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 학기에 한 번씩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유럽어권 등 언어권별로 학생을 선발해 파견 및 초청한다. 2014년에는 유럽과 아시아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을 활성화하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를 통한 우수 교환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장학생을 배출했다.

GKS는 교육부가 장학금을 지원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학부와 대학원생이 분리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추천받아 국내 대학에서 1년간 한국어 연수를 거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

경희대학교의 국제협력 하계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2014 Summer Program'이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은 매년 하계방학 기간에 문화, 경제,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세계 석학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실무진을 초청, 세계 최고 수준의 심화교육과 다양한 참여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에는 '인류와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인류와 문명, 평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 3개 트랙, 총 14개의 강의를 개설됐다. 외국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이외에도 국내 기업과 비정부기구(NGO)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됐다. 이번 Global Collaborative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27개국 29개교 26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2005년 10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의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Global Collaborative'는 2008년 중국 베이징대학,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UN, 세계NGO협의체 CoNGO가 참여하면서 보다 세계화된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됐다. 매해 글로벌 이슈를 테마로 담은 강의를 통해 국내외 대학(원)생들에게 인류 공동가치와 보편적 가치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지구시민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고 있다.

### 동·하계 국제화 연수단 파견

경희대학교는 어학과 전공 연수뿐 아니라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국제화 연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화 연수단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 언어권별로 성적, 어학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현지에는 인솔자가 동행함으로써 학생 만족도와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7개국 10개 대학에 167명의 국제화 연수단을 파견했다. 파견된 학생들은 동·하계 방학 3~5주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대, 영국 맨체스터대, 캐나다 빅토리아대, 대만 국립성공대, 일본 동경국제대 등에서 연수했다.

이외에도 20명의 학생이 동계와 하계방학에 2개국 2개 대학에서 글로벌 전공 연수를 받았다. 학생 8명은 하계방학에 2주간 미국 페어레이디킨슨대, 12명의 학생은 동계방학에 2주간 인도네시아대에서 연수했다.

### 해외 대학 연수단 초청

해외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다변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 대학 연수단을 초청했다. 경희대학교는 매년 해외 대학 연수단을 초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해외 대학 학생들의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14년에는 262명의 학생을 초청했다. 일본 간세이 가쿠인대 연수단 15명을 시작으로, 미국 피츠버그주립대 13명, 인도네시아 학생 교류단체인 APIMUN(Asia Pacific-Indonesia Multicultural Understanding Network) 8명,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 54명, 미국 새기노밸리주립대 14명, 미국 워싱턴대 15명, 일본 긴키대 외 13개 대학 123명, 일본 소카대 20명의 연수단이 경희대를 방문했다.

## 국제화 부문 주요 성과

### 제17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제17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2014년 5월 15일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38개국 1,232명이 지원한 예선을 거쳐 12개국 15명의 외국인들이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 이날 '독특한 한국 문화 체험-동아리 활동하면서 경험한 게임 문화'를 발표한 경희대 국제교육원 압사득 오네게(카자흐스탄)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그는 "게임을 하면서 친한 친구도 사귀게 됐고, 한국어 어휘 실력도 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주제는 '한국을 소개합니다'와 '한국 문화 체험'이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다양한 문화를 들려주며 '정'을 최고의 한국 문화로 꼽았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선정

교육부와 법무부가 시행하는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 평가 결과,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2014년 3월부터 3년이며, 매년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법무부 불법체류율, 유학생 의료보험가입률 등 평가지표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의료보험가입률, 불법체류율, 언어능력 등의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학생모집과 선발,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구축, 학사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 유학생 유치·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모범적 기준을 제시한 뒤, 이를 평가해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YUNG HEE UNIVERSITY

# 창조와 도약









# 행정·복지·인프라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해온 경희는 2014년,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구성원 소통을 거쳐 교육, 연구, 행정, 재정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실행에 들어갔다. 행·재정의 안정화, 합리화와 함께 행복기숙사 2동 완공, 공학실 협동 리모델링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했다. 행정의 전문화를 실현할 새로운 종합 정보시스템 'Info21' 사업도 본격 추진됐다.

## 행정

###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 발표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에는 재정 현황과 행·재정 개선, 재정 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3년 연말부터 추진해온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이하 발전계획안)과 ‘대학재정확충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경희는 2013년 11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학행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한 후, 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확충 방안을 작성했다. 이후 구성원 소통을 거쳐 교육, 연구, 행정, 재정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은 2014년 6월 18일 제4차 합동교무위원회에 이어, 20일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이후 25일 총장 서신 발송, 30일 미래정책원 서신 발송으로 전 구성원과 공유했다.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희는 적정 적립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대학예산 운영 철학에 따라, 지난 8년간(2006~2013년) 교육과 연구 분야에 396억 원(연평균 49억 5,000만 원)을 추가 투입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윤리적 예산 운영과 함께 수입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해왔다. 등록금 의존율은 2006년 77%에서 2013년 71%로 낮아진 반면, 산학협력단 전입금, 국고 보조금 등 등록금 외 수입은 증가했다.

2014학년도 1학기에는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수립·추진했다. 유사부서 기능 통합 등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강좌규모와 교직원 인력규모, 자율운영제도, 연구지원제도 등을 개선했다. 다양한 입학전형 개발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도 확대했다.

앞으로는 행·재정을 안정화·합리화하고, 대학 핵심가치를 강화해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이뤄낼 계획이다. 경희는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중장기 재정 사업 계획 수립과 기틀도 마련하고 있다.



## 복지·인프라

###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 2동 완공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공공기숙사) 2동이 완공,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6월, 정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된 경희대는 이문동, 회기동, 대운동장 부지에 기숙사 3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이문동, 회기동 기숙사가 신축돼 2014년 2월 말, 124명의 학생이 입주했다.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은 대학이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과 교육부 산하 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방 출신과 저소득층 대학생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부담 10%로 구성된다. 경희대는 저리의 공공기금 지원으로 기숙사를 신축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거주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했고, 이문동 부지(약학대학 옆), 회기동 부지(농촌경제진흥원 옆), 운동장 부지 등 3개 사업에 동시 선정돼 수도권 대학 최대 규모인 23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운동장 공공기숙사 사업은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과 동시에 진행 중으로 2016학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운동장 기숙사가 완공되면 서울캠퍼스 기숙사는 2,616명(현재 1,690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돼 기숙사 수혜비율이 현재 10.5%에서 16.2%로 향상, 학생만족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Info21' 추진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Info21'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nfo21 사업은 BPR·ISP(업무과정 재설계·정보전략기획)을 우선 추진한 후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4년 동안 진행단계별로 집행될 계획이다.

Info21 사업단 홍충선(컴퓨터공학 교수) 단장은 “현재 종합정보시스템은 14년 전에 구축돼 노후화로 인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복잡도 증가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있고,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대학 교육·연구 수월성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희는 2013년부터 미래정보화 모델을 수립·구축해 역량을 극대화하는 Info21 구축을 추진해 왔다. Info21 도입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은 물론, 대내외평가, 성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지원정보체계가 마련되고,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업무 프로세스와 메일, SNS, 설문조사, 보안, 개인정보보호, 서버 등 정보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과대학 ‘공학실험동’ 리모델링 완료

2014년 3월 말, 공과대학 ‘공학실험동’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2013년 12월부터 진행된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실험동을 재정비,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실험 장비를 구입해 실험 환경을 개선했다. 리모델링이 진행된 실험동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걸쳐 약 5,000m<sup>2</sup> 규모다. 33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Space21’ 사업으로 공대는 ‘제2 공과대학관’을 신축할 계획이지만, 이에 앞서 시급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15개의 새로운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했고, 학부생을 위한 ‘공동실험실’이 새로 생겼다.

### 국문 홈페이지 개편

경희대학교 국문 홈페이지(www.khu.ac.kr)가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지향하는 경희의 미래상을 알리고 창조적 소통의 공간으로 개편, 2014년 1월 6일 오픈됐다. 국문 홈페이지 개편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정보 접근성과 전달력에 초점을 맞췄다. ‘웹 표준’을 준수해 사용자 접속 환경과 기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웹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콘텐츠 구성 역시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콘텐츠 맵을 재구성했다. 음성을 지원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홈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디자인은 간결하게 구성하고, 색채는 대학통합 이미지(U)를 기반으로 적색과 청색 계열을 활용했다. 개편된 국문 홈페이지는 ‘제11회 웨어워드 코리아’에서 대학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웨어워드 코리아는 국내 유일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 또는 리뉴얼된 데스크탑, 모바일 기반의 웹사이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평가한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부터 전면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영문 대학 홈페이지의 디자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 첫 번째로 2012년 5월, 새로운 영문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세계 속의 경희를 알리고 소통 공간으로 개편한 영문 홈페이지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9회 웨어워드 코리아’에서 교육 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대학문화

2014년 경희는 지속가능한 미래대학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학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재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역동성을 살려내기 위한 연계와 협력방안을 논의, 연계협력의 대학문화를 만들어왔다. 개교 65주년을 맞아 경희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를 재조명하고, 대학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 함께 일궈야 할 미래비전도 논의했다. 총장과 학생이 함께 교육, 정치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도 펼쳤다.

##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

### 2014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 ‘혁신과 창조-지속가능한 미래대학을 위한 행·재정’

2014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2월 20일 광릉캠퍼스에서 ‘혁신과 창조-지속가능한 미래대학을 위한 행·재정’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이하 발전계획안)’이 발표됐으며, 발전계획안에 대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과 국제캠퍼스 교무위원을 비롯해 교수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등 구성원 대표가 초청됐다.

발전계획안은 교육, 연구, 행정, 재정 분야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한 것으로, 대학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실무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후, 지난 연말 ‘대학 행정·재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수립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구성원과의 소통을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는 그동안 대학의 근본 강화를 위해 학문적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한편, 대학 운영에 관한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비판적 사유’와 ‘대안적 사유’를 통해 변화를 기하고, 대학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함께 만들어 대학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 2014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경희의 역동-연계와 협력’

2014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8월 22일 광릉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경희의 역동-연계와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위한 역동성을 살려내는 방안으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원 총장은 ‘총장과와의 대화’에서 경희의 설립자가 줄곧 강조하던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경희’를 구현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조 총장은 “앞으로 교내외의 포괄적 연계·협력



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한편, 세계적인 대학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법인과 대학의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어진 현실적 여건과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식전환과 협동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뒤,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이 경희의 미래, 문명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구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 주체의식을 확고히 갖자"고 당부했다.

연찬회에서는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교류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연계협력 클러스터의 가능성이 발표됐다. 경희는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을 수립하면서 인류문명, 미래과학, 문화예술, 바이오헬스, 사회체육 등 5개 중점 분야에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래정책원은 "연계협력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인원 총장은 총평에서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연설문을 묶은 <불가능한 예술(The Art of the Impossible)>을 소개한 뒤, "하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이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개선하는 예술(The Art of Improving Ourselves and the World)이 정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하벨의 이러한 관점은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의 세계와 문명을 추구해온 경희정신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한 조 총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한한 도전과 열정, 변화의 전위를 함께 이루자"고 당부했다.

### 대학 초청 이사진 간담회 '경희의 현황과 전망'



대학 초청 이사진 간담회 '경희의 현황과 전망'이 8월 29일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열렸다. 법인 이사장 등 이사진 7명, 총장 및 교무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는 '경희의 위상과 재정 : 정상을 향한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법인과 대학이 경희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였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법인과 대학이 협력해서 함께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등록금 외 신규 재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인 이사들은 재정사업 추진시 대학은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법인 소유 부지의 장기임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평판도 향상이 기부금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인 이사들의 의견도 있었다. "경희는 지난 8년간 교육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고, 외부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옳은 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평판도가 그에 걸맞지 못하다"라는 평가와 평판도 향상은 기부금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동문의 참여도 강조했다.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세계 정상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는 현재의 2.2배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위원회를 통해 법인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 속에 법인 자산 운용과 대학 재정사업, 기부금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진은 "법인의 기능은 첫

번째, 장학 이념을 이어가는 것, 두 번째는 대학에 전출금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인과 대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APAIE 총장 라운드테이블

‘2014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협회 회의(APAIE Conference 2014)’의 총장 라운드테이블이 3월 19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깨어있는 고등교육을 향하여(Towards Conscious Higher Education)’를 주제로 열린 총장 라운드테이블에는 경희대를 비롯해 미국 하와이대, 대만 담강대, 태국 마히돌대, 중앙대, 서강대 등 아태지역 7개 대학 총장과 25개 대학 부총장, 19개 대학 국제교류처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기초발제에 이어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다.



조인원 총장은 기초발제에서 “현대 대학은 국가와 사회, 시장과 경제, 나아가 문명의 흐름에 초석이 된 학술과 배움의 장을 제공했지만, 이 같은 성취 이면엔 대학이 고유의 이상과 정신을 뒤로한 채, 시대와 체제의 요구에 편향된 기관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대학의 근본에 관해 성찰하고, 대학이 전통과 현실, 미래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할 것을 제안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대학총장회(IUP) 사무총장인 미국 페어레이디킨슨대 제이슨 스크르자(Jason Scorza) 박사의 사회로 아태지역 고등교육 환경의 도전과 기회, 대학의 궁극적 목적의 성찰, 대학의 학술연구와 사회공헌의 균형 등의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대학은 더 나은 인간의 미래를 위한 학문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경을 넘는 교육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AIE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교육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기구로, 2006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해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공동 발전과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에는 경희대를 포함한 14개 국내 대학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최했다.

### 미래고등교육포럼

개교 65주년을 맞아 더 나은 대학을 위한 담론을 창출하고, 이를 지구사회와 공유하고자 2014년 3월 24일 ‘미래고등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원 서보명 교수를 초청해 ‘20세기 인문학의 대학 개혁론과 현대 대학의 위기’를 주제로 대학의 역사와 위상을 인류 문명사 차원에서 조망하고, 21세기 대학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을 모색했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대학 구성원이 인간과 세계, 문명에 봉사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어떤 여정을 함께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이 시대 지성사회에 던져진 큰 물음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한 뒤, “이 자리가 대학 근본에 관한 존재론적 물음과 함께 현실과 이상의 “황금률(Golden Rule)”을 찾아나서는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보명 교수는 “순위경쟁으로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대학다운 대학의 자세”라고 강조하고, 현대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교양과목 확대’를 주문했다. 서 교수는 “전공 중심으로 편성된 대학 현실을 반성하고, 대학 학문의 재구성, 특히 인문학 분야들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부문화 확산

### ‘미래대학’ 지원할 미래위원회 활동 본격화

2014년 연말,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경희의 미래비전에 공감한 동문과 구성원의 기부가 이어졌다. 9월 26일,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을 자문·지원할 ‘경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미래를 향한 경희의 담대한 꿈과 지구적 신뢰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미래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글로벌 트러스트 기금 15억여 원을 모금했다. 김연수(한의학과 63학번, 김한의원 원장) 동문과 유명철 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태원(의학과 74학번, 미래위원회 사무총장) 동문이 각각 2억 원, 조서환(영문과 79학번, 조서환마케팅그룹 회장) 동문이 1억 5,000만 원을 쾌척했다. 최재영(경영학과 71학번, 거봉 INC 대표이사), 권영옥(의학과 74학번, 영서의료재단 회장), 하태수(약학과 77학번, 백두산약국 대표), 김근식(원예학과 80학번, 동방침구제작소 대표이사), 오주환(화학과 84학번, 재우엔프라 회장) 동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억 원을 기부했다. 김연수 동문은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졸업하고 한의사로 살 수 있게 돼 모교에 늘 빛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빛을 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기부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간 김연수 동문은 장학금, 건축기금 등으로 6억 원 이상을 기부했고, 이번에 2억 원을 더해 총 8억여 원을 기부했다.

이태원 미래위원회 사무총장은 “미래위원회 출범 후, 동문, 구성원들과 경희의 창학 정신,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많은 동문과 구성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미래위원회는 성금캠페인 이외에도 미래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 윤영석 동문, 발전기금 2억 원 기부



윤영석(한의학과 77학번, 춘원당한방병원 병원장) 동문이 10월 16일, 발전기금 2억 원 기부를 약속했다. 1억 원은 10월 15일에 기부했고, 나머지 1억 원은 기부 약속을 약속했다.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윤영석 동문은 “최근 모교의 대학평가 순위가 상승한 것을 보면서 동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모교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 김철희 경영대학원 재학생,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철희 세이펜전자 대표이사가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개교 65주년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0월 2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김철희 대표이사는 “30여 년간 사업을 해왔는데, 경희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사업가로서 날개를 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학문화 부문 주요 성과

### 개교 65주년 기념행사 '경희의 얼과 미래, 담대한 변화의 전위에서'

개교 65주년 기념행사가 2014년 5월 19일 평화의 전당 로비에서 거행됐다. '학문과 평화 65년 - 경희의 얼과 미래, 담대한 변화의 전위에서'를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학생, 교수, 동문,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희는 이날,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를 재조명하고, 인간과 문명의 내일을 위한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모습을 모색했다.

조인원 총장은 기념사 '5월의 성찰, 새로운 철인(哲人)을 위해'에서 이 시대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양심과 가치를 저버린 시대의 왜곡과 편견, 불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새로운 철인'을 인간과 사회, 자연과 문명의 전일적 사유로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인간, 인간과 물질의 전도된 지위를 교정하려는 인간, 영혼과 세계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불의를 개선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다.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조영식 박사가 세계대전에 이은 민족상잔이라는 현실 속에서 품었던 물음을 다시 묻게 하고, <문화세계의 창조>에 담긴 논제가 새 시대의 담론으로 유효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류 문명의 실천적 돌파구를 찾고, 그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 <문화세계의 창조> 복간본 발행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의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가 63년 만에 복간됐다. 미원조영식박사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이 발행한 복간본은 개교 65주년을 맞아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돌아보는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14년 5월 18일 출간됐다. 기념사업회는 <문화세계의 창조> 복간본과 함께 리라이팅본도 출간했다. 리라이팅본은 조영식 박사의 사상을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표현으로 풀어 쓴 것이다.



### 2014학년도 공동 입학식

'2014학년도 공동 입학식'이 2월 28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공동 입학식에는 조인원 총장, 교무위원, 구성원 대표가 참석해 신입생의 입학에 축하했다. 공동 입학식은 서울과 국제캠퍼스가 함께 참여해 '하나 된 경희'를 보여준 행사로, 2013년 경희는 공동 입학식 등 다양한 신입생 환영행사를 통해 혁신적 입학문화를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신입생 여러분은 자신의 성취와 타인의 성취를 함께 일굴 공동의 문화를 지향하며, 무한한 상상의 길, 학문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희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주로, 세계로, 미래로 열린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학문의 즐거움을 찾아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학식은 신입생 전원이 단과대학별로 깃발을 들고 학장과 함께 평화의 전당으로 행진하는 퍼레이드로 시작했다. 입학식이 개최되는 동안 신입생 학부모는 크라운관과 각 단과대학에서 웹캐스트를 통해 입학식 실황중계를 시청하고, 학부모 환영행사와 학과 간담회에 참여했다.



### 경희교육포럼 '경희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고, 내일을 그리다'

'경희교육포럼'이 지난 11월 26일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열렸다. 교육사업추진단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종료로 앞두고, 경희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주제는 '경희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고, 내일을 그리다'였다. 포럼에서 조인원 총장과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경희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조인원 총장은 대학은 근본적으로 학술의 탁월성에 주력하고 학술적 성취가 사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뒤, 이를 위해 비판적 사유를 넘어 대안적 사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춰왔다고 설명했다.

### 총장-후마니타스칼리지 북토크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개교 65주년 기념 '총장-후마니타스 칼리지' 북토크가 2014년 5월 27일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누리극장에서 개최됐다. 북토크에 참석한 조인원 총장과 학생, 서울시민대학 수강생 등 300여 명은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에 앞서, 조인원 총장은 '인간의 길, 정치의 길-변화의 전위에서'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세월호 안에는 우리 사회의 왜곡과 모순, 더 크게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가 들어 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조 총장은 '세월 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길, 정치의 길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 또 그 실천의 세계를 어떻게 열어가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희에서는 스승의 날을 반납해 교육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진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학생들은 대학 교육에 대한 성찰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업체 관계자,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등을 배출한 교육 기관에 근본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탐욕과 불의, 부조리, 무책임의 현실을 극복하는 데 있어 대학과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장애학생 학습권 확대를 위한 총장과의 대화

'장애학생 학습권 확대를 위한 총장과의 대화'가 10월 28일,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학내 학습소수자인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학습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인원 총장은 "경희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 공존, 공영의 세계를 함께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한 뒤,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대학의 책임임과 동시에 인간의 근본 도리"라고 밝혔다.



### 총학생회 주최 '총장과의 대화'

총학생회는 11월 19일 '총장과의 대화'를 마련해 조인원 총장을 초청, 대학 운영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에서 열린 '총장과의 대화'는 1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많은 학생들은 대학이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조인원 총장은 "중요한 문제는 희망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뒤,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향한 꿈과 미래를 돕는 거교적 센터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꿈과 열정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영감, 통찰력, 도전 정신, 기개, 실천력을 고양하는 프로그램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디자인해보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제40회 독서토론회 기념 조인원 총장 초청 북토크

'제40회 독서토론회'가 11월 13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서토론회는 40회를 기념해 조인원 총장이 초청됐다. 중앙도서관에서 매 학기에 개최하고 있는 독서토론회는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를 초청해 그들의 작품세계와 사상을 나누는 자리다.



북토크 주제는 '미래정치의 회상-공감과 연결의 또 다른 지평을 찾아서'였다. 윤성훈(행정학과 11학번) 학생은 "그간 우리는 인간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인문학적 사유와 과학을 통해 인간 본질을 탐구해왔다"며 인문학적 사유와 과학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다. 조인원 총장은 중요한 것은 '모름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고 "인간의 무한한 상상과 풍요를 열어갈 '인문정치,' 자연 질서의 인간적 가치를 찾아 나선 '지구정치,' 현대와 미래의 위기를 관리·전망하는 '소임정치,' 그 융합의 정치 위에 정치의 미래가 있다"며 "현실과 실용, 쾌락과 실리의 단기적 가치를 넘어 미래회상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 경희대학교 송년회 'Magnolia 2014'

경희대학교 송년회 '매그놀리아(Magnolia) 2014'가 12월 19일 평화의 전당에서 거행됐다. 매년 연말 열리는 매그놀리아 행사는 경희가 이뤄낸 지난 1년간의 성장과 도약을 되돌아보며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향한 열정과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 '미래의 환희, 경희의 희망과 소명을 함께 깨우며'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희망으로, 내일의 희망을 미래의 환희로 이어가려는 열망과 의지, 결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진하는 경희

2014년은 교육, 연구, 실천 전 분야에서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양궁부는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를 석권하며 저력을 보여줬고, 대한민국 인재상, 전국 대학생 모의 UN회의, 행복나눔인상, 대한민국건축대전, 신춘문예 등에서 학생들의 수상 소식도 전해졌다. 학생 개개인의 학술적 성취가 어떻게 타인과 사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도입한 '매그놀리아 인증제'와 '웃는 사자상' 1호 학생이 배출되기도 했다.



## 체육부 선전

###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남대부 단체전·여대부 개인전 금메달

양궁부가 '제32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남자대학부 단체전과 여자대학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4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천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열린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마지막 날 남대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희대는 계명대를 세트승점 5대3으로 제압하고 4연패를 달성했다. 전훈영(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학생은 여대부 개인전 결승에서 창원대를 세트승점 6대0으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남대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희대는 1세트를 55대55 동점으로 마무리해 세트승점 1점을 획득한 후, 2세트를 52대56으로 계명대에 내줬다. 3, 4세트는 54대51, 57대55로 이겨 세트승점 4점을 추가, 역전승을 거뒀다. 남대부 단체전 결승에는 박성호(스포츠지도학과 12학번), 오성식(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김도훈(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이승신(스포츠지도학과 14학번) 학생이 출전했다.

이 밖에도 경희대는 여대부 단체전 3~4위전에서 계명대를 5대3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성호 학생은 남대부 개인전 3~4위전에서 배재대를 6대4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부 최희라 감독은 "경희대 양궁부는 남녀팀이 함께 훈련하면서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경쟁하며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매일 반복되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 '2014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 준결승 진출

축구부가 '2014 카페베네 U리그' 8강전에서 상지대에 3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왕중왕전 준결승에 진출했다. 11월 14일 남해스포츠파크 바다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경희대는 전반 26분과 29분 이정훈(스포츠지도학과 12학번)과 김정세(스포츠지도학과 11학번) 학생의 연속골과 후반 30분 엄진태(스포츠지도학과 11학번) 학생의 썸네골로 역전했다.



## 학생 수상 소식

### 제임스 후퍼·이유민·권예하·김신중·한재훈 학생, '웃는 사자상' 수상



제임스 후퍼(지리학과 10학번), 이유민(국제학과 12학번), 권예하(언론정보학과 10학번), 김신중(경영학과 09학번), 한재훈(일반대학원 전자전파공학과 석사) 학생이 '제1회 경희 웃는 사자상'을 수상했다. '웃는 사자상'은 학술연구, 사회공헌, 문화예술 부문에서 창학이념과 미래비전을 구현해 더 나은 미래 건설에 기여한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개교 65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행됐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장학금이 수여됐다.

'웃는 사자'는 '목련화'와 함께 경희의 상징이다. 목련화가 봄을 알리는 선구자적 이미지를 표상한다면, 웃는 사자는 포용력을 가진 힘을 의미한다. 2009년 개교 60주년 이후 매년 연말 '목련상'을 수여해온 경희는 교수, 직원, 동문을 대상으로 하는 '목련상'과 함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웃는 사자상'을 통해 대학문화를 보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일궈나갈 계획이다.

### 임진웅·양유진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임진웅(한의학과 09학번), 양유진(체육학과 09학번) 학생이 교육부의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임진웅 학생은 연구 활동을 통해 다수의 논문 성과를 내고 다양한 의료봉사를 펼쳐왔다. 양유진 학생은 세계 4대 극한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고, 스포츠기부(마라톤) '드림러너'를 추진했다. 이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진웅 학생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생 협동 학술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다. 교수와 학부생이 관심 있는 전공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교수의 도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연구를 지속했다. 임진웅 학생은 "그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됐다"고 전했다.

양유진 학생은 졸업을 1년 앞두고 온몸을 던져 도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끝에 마라톤에 도전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달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 그는 '기부 마라톤'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드림러너'를 추진했다. 그는 "예전에는 취업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고상문·김영도·서지혜·추현실·허경준 졸업생, 매그놀리아 인증제 1호

2014년 2월 졸업한 고상문(영미어학부 07학번), 김영도(건축공학과 11학번), 서지혜(생체의공학과 10학번), 추현실(한약학과 10학번), 허경준(한약학과 10학번) 학생이 매그놀리아 인증제 1호로 선정됐다. 경희는 학생 개개인의 학술적 성취가 어떻게 타인과 사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매그놀리아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는 학생 개인 역량을 수치화된 자료로 입증하는 인증제도다.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비교과 활동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다. 기준에 도달하면 마지막 학기인 8학기에 매그놀리아 인증과 활동 지원비(등록금 범위 내 최대 1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 박희수·이민규 학생, 전국 대학생 모의 UN회의 대상 수상

국제학과 박희수·이민규(11학번) 학생이 7월 2일부터 4일간 열린 '제20회 전국 대학생 모의 UN회의'에서 대상(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대학생 모의 UN회의는 학생 대표들이 추첨을 통해 결정된 국가의 UN대사가 되어 안보, 인권, 군축, 개발 등의 의제를 두고 외교 역량을 겨루는 자리다. 2014년에는 전국 62개 대학에서 468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경희대 국제대학은 최근 전국 대학생 모의 UN회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대회에 참가한 두 팀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희수·이민규 학생 외에도 박도현(국제학과 13학번)·서효상(국제학과 08학번)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2013년에는 이동엽·홍두리(국제학과 10학번) 학생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유영상 학생, 보건복지부 행복나눔인상 수상

의학전문대학원 유영상 학생(08학번)이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2014년 제1회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했다. 행복나눔인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한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는 상이다. 유영상 학생은 희귀난치성질환 아이들을 돕고, '1% 나눔운동' 추진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확정됐다.

유영상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를 폭넓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보고 싶었다"면서 "전공과 연계해 의료 분야의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경희대 의전원에 입학한 2008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돕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손지훈 학생,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수상

건축학과 손지훈(07학번) 학생이 '제33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 일반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2014년 한 해 동안 정림학생건축상, 도쿄모모 세계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건축대전에는 5개국에서 7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손지훈 학생은 '학교로 동네 만들기(School as a neighborhood unit)' 작품을 출품했다.

손지훈 학생은 이번 작품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다양한 강연을 통해 '공공성'의 화두를 갖게 됐다는 그는 "머릿속에만 있던 '공공성'을 건축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학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건축적인 완성도를 이끌어내는 교육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 재학생·동문 등 5명, 2015년 신춘문예 6개 부문 당선

정현우(교육대학원), 이현우(아동주거학과 09학번) 학생, 최종환(국어국문학과 90학번), 조창규(국어국문학과 01학번), 이은이(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동문 등 재학생과 동문 5명이 2015년 신춘문예 6개 부문에서 당선됐다. 정현우 학생은 조선일보 시 부문, 이현우 학생은 대산대학문학상 시나리오 부문, 최종환 동문은 문화일보 평론 부문, 조창규 동문은 동아일보 시 부문에 당선됐다. 이은이 동문은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소설 부문에 동시에 당선됐다.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기간: 2014.1.1(수)~2014.12.31(수)

### 공식 일정 (총 683회)

#### 공식 회의: 273회

합동교무위원회, 발전위원회, 각 위원회 회의  
총장 주재 부총장 회의, 실무부서장 회의, 의료기관장 회의  
단과대학 간담회  
구성원 대표 간담회

#### 면담: 233회

부총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장, 실무 부서장 등 교내 구성원 면담

#### 행사: 111회

교내·외 공식 행사  
공식 오·만찬  
총동문회 행사



경희인의 밤



대학주보 인터뷰



개교 65주년 기념식

## 교외 인사 접견: 64회

정·관·재·학계 인사

국내·외 자매교 인사

총동문회 인사

해외 교류협력기관 인사 및 외교 사절

각종 기부 협약 체결 관련 인사

## 언론 인터뷰: 2회

〈중앙선데이〉

〈대학주보〉



이사진 초청 간담회



장애학생 간담회



경희미래리포트 포커스 그룹 토론회

## 총장 연설문

### 1.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식사 | 2014년 2월 19일

## 현실의 두 얼굴, 희망을 깨우려면

졸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학부모, 친지, 내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세월 경희와 함께한 모든 분들의 경험이 뜻 깊은 추억으로 남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 多事多難이란 말을 하곤 합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서로 새 희망을 나눕니다.

가족, 친지, 지인과 함께 그런 말들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오랜 풍습입니다.

풍습이어서인지, 좀처럼 잘 묻지 않는 물음이 있습니다.

왜일까? 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지구상 온 인류가 함께 만든 삶의 모습엔 긍·부정의 정서가 교차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즐거웠던 일.

감사했던 일.

희망을 담아냈던 일.

그리고 그런 일들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또 다른 정서, 근심과 고뇌, 슬픔과 고통을 마주했던 일.

우리는 그런 일들이 교차하는 것이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졸업을 앞둔 지난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회진출을 앞두고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줄 압니다.

겪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변민.

혹은 설렘.

사회와 주변에 대한 긍·부정의 인식과 도전의식.

마음을 구성하는 여러 정서와 함께, 새 출발을 위한 희망과 지향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그런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는 우려도 했을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실이 더 나은 자신을 향한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 전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먹는 것, 그것에 부수하는 존재다.”

장구한 세월동안 진화의 대서사를 써내려온 인간.

파란의 대서사와 함께 생존의 역사를 만들어온 인류.

그런 가운데 인간사 모든 것은 결국 생존과 그에 따른 문제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이 현실의 현대적 의미를 이렇게 전합니다.

“생존과 번영의 사회적 조건에 길들여진 우리는 나와 너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략의 늪’에 빠져든다.”

농익은 현대의 경쟁체제, 그 체제로 빠져들게 되면서, 생존경쟁이 대중적 삶의 현실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뿌리 깊은 삶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존과 그에 부수하는 삶을 넘어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싶지만, 현실은 ‘생존 그 자체에 충실하라’는 지상명제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현대사회의 정치는 경제를 먹고 자랍니다.

경제는 우리의 삶과 일상을 조직합니다.

교육과 문화 역시, 더 나은 생존과 번영의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의 경쟁논리에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깊은 성찰은 뒤로한 채, 생존과 번영의 세파에 나를 맡겨야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사다난한 현실에서 또 다른 희망을 우리가 매년 거듭 말해야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시대의 거인을 잃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만델라는 아파트트헤이트에 맞서 치열한 투쟁적 삶을 이끈 분입니다.

27년간의 투옥 생활. 자유와 진실을 향한 끝없는 분투.

그런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많은 일화도 남겼습니다.

그 중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Invictus(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란 영화에 담긴 대통령 만델라, 인간 만델라 이야기입니다.



만델라는 1994년 남아공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후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국정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를 거듭하던 경제문제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력했던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흑백 갈등, 왜곡된 정치현실을 헤쳐갈 수 있는 마음과 정서 문제였습니다.

취임 후 만델라는 럭비 월드컵 준비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모들은 백인 위주의 명문 럭비팀을 새 정부 권력체제에 맞게 일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거부했습니다.

백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선 백인의 정체성을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절제”로 응해야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그런 생각은 집권 내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국민 앞에 용기 있게 밝히고 화해를 구하는 정적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만델라의 용단. 어떻게 내려진 것일까?

영웅 이야기는 범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식과 마음 세계가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저엔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사유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웅 뿐 아니라, 일반인의 모습에서 그 역량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주어진 현실 너머 세계로의 탐색과 도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역사 변화는 늘 그런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끝없는 창조적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이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어제의 현실은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은 또 내일의 현실이 아닙니다.

다르게 사유하고 행동하며, 더 나은, 더 온전함을 지향했던 것이 인류의 변천사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넘어 또 다른 희망을 구하던 삶의 모습에서 인류의 위대함이 탄생했습니다.

해마다 '다사다난'을 말하며 또 다른 희망을 꿈꾸는 우리.

그 인간적 현실에서 더 큰 변화의 단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몇 해 전 지인 한 분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The Crack in the Cosmic Egg〉란 책입니다.

“우주라는 알에 금이 가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주목하는 우주란 실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존재임과 동시에 인간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 개념 안에서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논합니다.

역동의 인과(因果)를 말합니다.

인간의 우주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현실을 논할 때에도 우리는 같은 논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생각세계.

그것을 우리는 흔히 현실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공유된 생각은 현실의 전모가 아닙니다.

우주의 균열처럼, 우리가 있는 현실에도 균열과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틈, 틈 밖의 무한세계로 도전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참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학문을 닦아온 경희도 바로 이 현실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기성 현실의 틈을 찾아, 틈 밖의 또 다른 현실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 지향의 한가운데 우리 대학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관념으로 나뉘든 편견으로 나뉘든, 불완전한 인간의 양심과 가치, 문화를 거듭 찾아 나서자는

것이 경희의 정신세계입니다.

그 정신세계에 의지와 실천을 담아내자는 것이 경희의 역사이자 전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회라는 현실에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기성화 돼 있는 현실은 앞서 말했듯이 생존과 경쟁의 바다로 이뤄져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삶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존과 경쟁, 그에 부수하는 사회현상을 반복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10년, 50년, 또 100년, 1000년 후에도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다사다난'을 말하고, '새 희망'을 되풀이해 말하는 까닭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만델라의 용기.

우리 모두에 내재된 다르게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

현실과 이상의 틈에서 열린 인간의 문화세계를 이루려는 경희의 꿈.

이 용기와 역량, 꿈과 희망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가야 할 졸업생 여러분께 다소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경희인 모두의 힘을 담아 응원하면서, 경희의 시원을 이룬 “문화세계의 창조”에 관한 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는 1952년 출간된 설립자의 저서 <문화세계의 창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책은 경희정신의 철학적 기초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복리를 위해 진심, 진력하는 동시에 전체의 이익을 배반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의, 주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대, 장소를 불문하고 선은 선으로 통하고 악은 악으로 통하는 행복한 세계를 창건해야 합니다...’

‘세계는 인간을 세우는 문화주의로 전환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시대사조와 아성의 논리에 갇힌 현실, 인간과 우주, 미래로 열린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몫에 대한 인간의 책무를 다할 때,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모교의 열 “문화세계의 창조”와 함께 더 큰 희망, 더 큰 미래의 주역이 되시길 다시 한 번 축원합니다.

## 상상의 길, 학문의 미래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경희인으로서의 첫 출발, 무궁한 가능성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며칠 전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긴 소치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즐기셨지요?

저도 TV나 신문을 통해 대회 이모저모를 접했습니다.

대회 기간 많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소식 가운데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연기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의 경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의연한 모습을 보인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Imagine이란 노래의 서정적 선율과 함께 한 마지막 갈라 무대도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동과 함께했던 Imagine.

저도 대학시절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또 우리 대학과도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3년 전입니다.

UN과 우리 대학이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곳 평화의 전당과 뉴욕 UN본부에서 동시에 개최된 이 회의는 “평화에 또 다른 기회를”이란 주제를 다뤘습니다.

회의 말미에 양 기관에 모인 5,000여 청중은 대형화면을 통해 서로 교감하면서 존 레논의 Imagine을 합창했습니다.

국가와 민족, 인습과 신앙, 소유와 탐욕으로 분열된 인간의 마음.

그 마음에 인간애의 상상을 불어넣는다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노랫말을 함께 불렀습니다.

상상의 세계.

이 세계는 인간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갈등과 평화의 갈림길.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좌절과 희망의 갈림길.



그 갈림길에서 상상은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런 상상의 세계와 함께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접하는 우리의 상상은 생각만큼 다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풍미하는 현대적 삶의 양식.  
삶의 양식이 만들어낸 관습적 사유와 행동.  
그 양식과 행동의 제약 속에서 우리의 상상 세계는 정형화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과 함께 우리는 힘겨운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분은 대학입시를 위해 치열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이제는 또 다른 과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졸업 후 취업과 진로 선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다시 주어진 좁은 관문.  
그 관문을 위해 지식을 쌓고, 학습을 반복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 과정은 사회적 삶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그 과정에 우리 모두의 '영원한 희망'인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가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실은 말합니다.  
'성장과 번영의 틀에 충실하라.'  
'경쟁력을 갖춰라.'  
이 지상과제와 함께 상상과 창조의 여정은 무한정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촘촘히 짜인 현대의 사회적 삶은 경쟁적 성취에 묶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넓고 깊은 삶을 위해선 더 큰 세계와 마주해야 합니다.  
틀을 넘어 또 다른 가능성을 꿈꿔야 합니다.

지난해 책 한 권을 접했습니다.

Stephen Greenblatt의 〈The Swerve〉(일탈)란 책입니다.

이 책은 서두에서 고대인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적 서사시를 소개합니다.

2천여 년 전 그가 말했던 세계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계, 혹은 우주는 헤아릴 수 없고, 분화될 수 없는 원자로 이뤄졌다.

무한한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어긋나면서 세계를 이룬다.

그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이 명멸하는 세계다.

인간은 사후 세계도, 영원불멸의 진리도 없는 세계를 살다 죽어간다.’

고대에 만들어진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통찰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관점에서도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처한 인간과 우주의 조건.

그 조건엔 충돌해야 할 운명, 어긋나야 할 운명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어진 현실의 틀, 생존의 조건은 상상하기에 따라 다르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을 루크레티우스의 서사시는 전해줍니다.

영원불멸의 무엇, 절대적인 무엇.

그 무엇을 신봉하지 않는다면, 상상의 길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현실에 처해 삶을 꾸려가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특성과 함께 우리는 경쟁적 성취를 위해 진력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앞서 말했듯이 현대사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라면, 삶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사회적 제약, 혹은 구성물이 나 대신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의 틀, 사회적 제약을 넘어 인간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

틀과 제약을 체화해내면서 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세울 수 있는 힘.

그 힘이 인간됨의 원천이 아닐까 합니다.

빛나감의 원리, 우리 안의 무한한 상상의 여분이 그 힘을 가능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입문하는 대학 사회엔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지구상 모든 대학들도 삶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적 탐구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분야들을 우리는 전공 학문이라 부릅니다.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의학, 예술, 체육학과 같은 분화된 전공 분야의 교육·연구가 실행되는 곳이 대학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와 있습니다.

4년의 대학생활이 시작됩니다.

각자 관심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런 분야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은 삶을 영위하고, 성취를 이루는 데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노력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 지식과 함께 어떤 나를 만들 것인가?

그 나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함의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며, 나를 세우고, 남을 느끼며, 함께 걸어갈 인간의 길을 탐색하는 것.

그것이 대학大學의 목적일 것입니다.

근본을 물으면서, 현상을 살피고,

현상을 말하면서, 이면을 파헤치고,

또 그 너머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끝없이 상상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 또 다른 자신과의 만남을 스스로 주선해가는 것이 대학일 것입니다.

대학의 존재이유이자, 학문의 미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친숙한 것, 낯선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뒤엔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도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물건을 사려할 때 왜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 북한에선 식량배급의 필요성을 의문시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친숙한 것이 서로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런 이질적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근원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 근원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우리는 알고 또 모릅니다.  
학문은 앎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그 앎을 끝없이 회의해야하는 것도 학문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학문은 그리고 대학은 앎과 모르는 근원을 영원히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이 입학한 경희대학교의 교시는 “문화세계의 창조”입니다.  
우주와 자연, 인간의 끝없는 여정과 함께 역사문명의 열린 문화세계를 찾아 나서자는 것이 경희의 전통입니다.  
자신의 성취, 남의 성취를 함께 일굴 공동의 문화.  
그 문화를 지향하며, 무한한 상상의 길, 학문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이 경희의 전통이자 역사입니다.  
이 역사, 전통과 함께 여러분의 드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의 제전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경쟁보다 아름다운 것은 땀과 노력이고, 그 땀과 노력에 묻어 있는 인간미라고 말합니다.  
존 레논의 Imagine은 노래합니다.  
경계와 틀,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더 큰 의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우주로, 세계로, 인간의 미래로 열린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바랍니다.  
학문의 즐거움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 3. 개교 65주년 기념식

기념사 | 2014년 5월 19일

## 5월의 성찰, 새로운 철인(哲人)을 위해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대학이 탄생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멀리 미주에서 65주년을 맞아 모교를 찾아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기쁜 날, 또 다른 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터무니없는 참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탐욕과 불의, 부조리, 무책임...

수많은 부정적 어휘가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힙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통한 심정이 커져만 갑니다.

지난 세기, 비극적 역사의 무게와 인간 실존을 끊임없이 고민하던 폴란드 시인 씬보르스카의 시구가 새삼 큰 여운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가 내게 편지로 물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묻고 싶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이 손진하기 짝이 없는 질문보다 더 절박한 질문은 없다.”

인간의 삶.

양심과 인간존중의 가치를 저버린 세월호 비극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의 서사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래된 탐욕과 부실의 습관.

뿌리 깊은 부조리의 관습.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는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새날을 향한 의식과 행동의 힘을 또다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교 65주년을 기념합니다.  
개교일을 맞아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인간 존재와 미래를 위해 묻고 또 물어야 할 이 질문과 함께 오늘의 의미를 되짚었으면 합니다.

지난 65년, 경희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모색해 왔습니다.  
뒤이은 학술회의에서 그 뜻과 의미에 관해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함께 경희의 얼과 역사를 이어온 “문화세계의 창조”를 되짚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문화세계의 창조”는 경희의 교시입니다.  
설립자의 꿈과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 꿈과 이상이 1951년 책으로 나왔습니다.  
해방과 독립, 전쟁의 숨 가쁜 역사의 와중에서 인간과 세계를 향한 열정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치욕적이고 참담한 일제의 압제.  
동서 진영과 이념 차이가 빚어낸 상잔의 비극.  
그 시대 아픔과 시련을 넘어설 또 다른 인간세계에 대한 꿈과 희망이 <문화세계의 창조> 서사입니다.

출현한 시대와 내용은 다르지만, 세월호 참사와 <문화세계의 창조>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양심과 가치가 무너진 현실.  
인간이 가야 할 길.  
그 길과 현실에 관한 화두를 던집니다.

<문화세계의 창조>가 써내려간 양심은 “마음의 경향”입니다.  
성찰의 시간에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 양심은 생래적으로 발생합니다.

마음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사회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시대정신이 양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양심의 모습은 인간이 판단하는 조건, 가치를 만듭니다.  
존재와 현실의 외중에서 삶의 의미, 선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것.  
그 발견과 함께 시대의 당위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가치이고, 그 가치가 집단 의식과 의지로 승화할 때,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인 '문화세계'가 열립니다.

설립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변화와 불변의 뒤섞임 속에서 양심과 가치, 문화를 읽어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 자유, 평화, 행복 추구의 문화를 창건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 했습니다.  
그 길이 인간의 문화이자, 정치이고, 교육의 요체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세월호의 비극적 현실이 참고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망자의 혼과 유족의 비탄을 온몸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현장 참사에 걸맞은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사회의 양심이 나서야 합니다.  
뿌리 깊은 부조리와 무책임을 바로잡고, 인간 존엄을 회복할 문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대학 교수님, 학생들의 겸허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제자들의 감사와 위로를 받아야 할 스승의 날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개교일 축제를 반납하고,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세월호 지휘부, 업체 관계자,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이들 모두가 우리 사회 교육기관이 배출한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성을 보살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겐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 대학은 양심과 가치, 문화에 대한 근본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내주신 교수님, 학생들.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조리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야.”

“그게 현실이야.”

거듭되는 그 현실, 누가 만든 것일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경희 안에 혹 “세월호의 모습”은 없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이제 경희가 또 다른 내일을 열고자 합니다.

반세기 전인 1964년.

경희는 개교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인간의 길을 열어갈 ‘세계 속의 경희.’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많은 재학생들이 설문에 동참했습니다.

대학과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관한 ‘젊은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 양케이트가 지난해 공개됐습니다.

개교 65주년을 맞아 또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대학은 무엇인가?”

“인간을 위해, 사회와 세계를 위해,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침보르스카가 문명의 모순과 재앙, 인간상실의 시대를 맞아 번민했듯이 또 한 번 근본을 물었으면 합니다.

더 나은 미래창조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인간 존중의 “민주혁명”의 책임을 떠안았던 전 체코 대통령 비츨라브 하벨의 용기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경희는 <미래리포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대학의 미래에 관한 경희의 상상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참여할 다양한 방안이 공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문명의 문제를 되짚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대학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성찰의 축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대는 세월호 참사가 말해주듯이 양심과 가치, 인간존중의 문화를 절실히 요청합니다.  
물질 성취에 편중된 일상의 무게는 우리를 비좁은 삶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더 나은 인간의 미래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문호를 넓혀야 합니다.  
넓혀진 문을 통해 양심과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통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역사의 진보를 일깨울 실천적 인간이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삶의 문'을 확장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새로운 철인(哲人)'이라 부릅니다.  
인간과 사회, 자연과 문명의 전일적 사유로 인간 존엄을 지키려는 인간.  
인간과 물질의 전도된 지위를 교정하려는 인간.  
영혼과 세계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불의를 개선하는 인간.  
그런 인간의 가능성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삶의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와 타인의 존엄을 함께 일궈낼 공감의 힘, 집단 지성의 힘을 더욱 크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철인의 소명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팽목항 바다는 외칩니다.  
'인간의 안전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 달라.'  
경희의 문화세계는 말합니다.  
'양심과 가치, 인간존중의 문화세계 건설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새로운 철인의 가능성과 함께 양심과 가치를 저버린 시대의 왜곡과 편견, 불의를 넘어섰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인간의 조건을 함께 열었으면 합니다.

#### 4.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33주년 기념 Peace BAR Festival 개최식

환영사 | 2014년 9월 22일

## 세계평화의 날 33주년 - 우주적 인간의 공적 실천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반기문 UN 사무총장님.

축사를 수락해주신 남아프리카공화국 Hilton Anthony Dennis 대사님.

이호진 유엔한국협회 부회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가 33번째를 맞았습니다.

앞서 손재식 전 평화복지대학원장님께서 이 날의 의미와 배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1981년, 경희는 세계대학총장회의 6차 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UN은 36차 UN총회 결의를 통해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을 기념하고, 고양하고자...” 이 날을 선포합니다.

“UN 회원국과 기관, 지역기구, NGO, 그리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UN과 협력을 통해,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평화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UN의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선포 후 경희는 매년 평화의 날을 기리는 학술·문화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간 총 32회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1982년 ‘현대사회의 위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인류와 문명, 사회와 문화, 정치 등의 포괄적인 인류사회 과제를 다뤘습니다.

그간 세계 많은 지성과 시민, 뜻 있는 기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어가는 열정과 노력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입니다.

주제 선정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새천년 벽두, UN은 “새천년발전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공표했습니다.

기아와 빈곤, 인권, 환경,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의제 개선을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이뤄내야 할 지구적 과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기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와 인류의 각성을 촉구한 이 과제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의 당면과제로 뿌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MDGs는 ‘미완의 성공’입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 UN은 창건 70주년을 맞아 'Post-MDGs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Post-MDGs 시대를 맞아 더 나은 지구촌 생존과 번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감의 지구 의식 확산입니다.

차이와 구분, 경계와 장벽을 넘어 생명과 생존의 여건을 마련하는 공유된 의식과 실천의 확장입니다.

공유된 의식과 실천. 그것의 근저엔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의 인간관, 세계관, 우주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리학의 거장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지구별의 미래는 단지 1000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인류는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암울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붕괴>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더욱 충격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호킹은 틀렸습니다. 우리에게겐 고작해야 50년뿐입니다.”

지금 추세에 비추면, 세계 대부분의 어장은 50년, 숲은 3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세계 강물의 85%를 사용하고 있는 인류는 물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과 생태 파괴, 그리고 새천년 벽두에 찾아온 9·11과 같은 테러와 폭력, 소수에 편중된 부의 축적과 모순은 수많은 지구의제를 풀어가는 데 혼란을 가중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인간과 공적 실천'을 이 시대의 화두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경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넘어설 인류의 공유된 철학과 신념, 공적 실천의 토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오늘 회의 주제 선정의 두 번째 배경은 우리의 현실적 삶의 터전인 국내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흔히 세계화의 문맥에서 이해합니다.

경제적 부와 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적 삶의 논리. 그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갈등과 대립.

그 관계의 망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양심과 존엄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비탄에 잠기게 한 이 사건의 와중에 인간 양심의 처절한 국면과 마주했습니다.

냉혹한 생존과 부의 논리 앞에, 탐욕의 확장 앞에,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절된 인간과 사회의 모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할지,' 다시 한 번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주 이야기>의 저자 토마스 베리 신부와 브라이언 스웜의 선견처럼, 분절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근원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의 세계는 우주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를 있게 한 '태초의 힘,' '우주의 근원적 역동'엔 상호 연결이란 공명과 연결의 현상이 있습니다. 138억 년 전 시작된 그 공명과 연결의 세계는 존재의 실상을 만들었습니다. 태초의 힘energy과 모체matrix로부터 비롯된 우주와 생명의 기나긴 진화의 여정은 우주질서와 인간관계가 불가분의 고리로 연결돼있다는 점을 시사해줍니다.

인간은 바로 그 무한한 관계의 소산입니다. 그 관계의 망 속에서 '존재의 불러냄'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의 길을 열어가는 실존세계입니다. 우연과 질서에 공명하고, 창조와 파괴의 와중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는 일. 그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는 일이 인간의 숙명일지 모릅니다. 그 숙명과 함께 인간적 가치와 존엄을 지켜내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사회의 왜곡을 극복해가는 것이 인간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우주적 인간의 공적 실천을 숙고해야 할 또 다른 사유입니다.

'유엔이 모색하는 Post-MDGs 시대의 꿈과 희망.'  
'세계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찾아나서야 할 관계의 미학.'  
이 모두 우리 인간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마주할 때" 탐색될 수 있습니다. 우주 내 존재인 인간의 의미와 실천 가치를 모색할 때,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공감의 인간관, 세계관, 우주관과 함께 인간 실천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 그 일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이유입니다.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33주년을 맞아, 기나긴 '인간 창조'의 여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이 또 다른 서사의 시작을 알렸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 세계평화의 날 33주년 행사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교수, 학생, 교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대학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 깊은 대화와 소통의 장을 기원합니다.

## 미래의 환희, 경희의 희망과 소명을 함께 깨우며

목련회의가 올해로 6회를 맞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새해, 새 희망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5년 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인간사가 그렇듯,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많은 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참사에 얽힌 수많은 사회적 문제, 철학적 문제는 앞으로도 깊이 성찰해야 하지만, 유가족과 사회의 '고통과 인내의 역설'이 또 다른 희망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정치 철학자는 '지도자는 현실의 위기관리 뿐 아니라 미래의 위기관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평범한 개인'으로 바꾸면, 이 말이 일상에 주는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넘어 미래의 또 다른 위기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 혹은 아쉬운 삶의 국면에서 미래 희망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명일 것입니다.

8년 전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명문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교육,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학 책임자와 만남이 있던 당일 아침,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구성원 한 명이 교수사회에 '왜 경희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희의 위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경희의 위상 강화가 희망을 깨우는 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와 세계가 존중하는 대학'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그때도, 지금도 마음 깊이 남아있습니다.

대학의 도약과 발전, 그리고 희망. 이를 향한 길은 여럿 있습니다.

주어진 역사와 전통, 미래를 향한 포부에 따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경희는 교육, 연구, 실천의 내실 강화, 탁월성 추구를 통해 새 길을 열어왔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문화세계의 길'을 지향하면서, 변화와 창조를 열어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희만의 큰 성취도 있었습니다.

구성원 모두 함께 만든 교육, 연구, 실천의 탁월성으로 사회와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올해 경희는 개교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65년, 설립자께서 경희의 먼 미래, 개교 50주년, 100주년을 향해 '경이로운 경희'의 꿈을 담은 <경희미래메시지>를 작성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해를 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21세기 초엽을 통과하는 이 시점을 흔히 "연결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촌 상호협력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나만의 성공,' '나 홀로 성취'는 이제 더 이상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도, 사회도, 대학도 '공감의 성공,' '공유의 성취'를 이뤄야 합니다.

연계협력을 통해 나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미래의 가치를 논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타워즈 문명까지 온 인류의 성취와 함께, 우리는 과연 세상의 굶주림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21세기에 굶주림은 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인가?

이 문제제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리는 현대인에게 다시 한 번 의지와 실천, 공감과 협력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경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합니다.

세계 최정상 대학보다 아직은 탁월성 규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족의 공간'이 역동적인 도전과 창조를 낳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불러냅니다.

부족함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를 불러내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내적으로 탁월성 축적을 이어가고, 외적으로 '외연 확대의 역동'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며칠 전 KIST와 우리 대학의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기관이지만, 그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대학원 학과를 공동으로 개설하고, 포괄적 협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른바 '홍릉밸리 프로젝트'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홍릉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구상하고 있는 홍릉밸리 사업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산학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의과학 연구 단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고양하는 뜻 깊은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마침 경희의료원이 'Humanitas Cancer Center' 신축을 앞두고 있고, 대학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어 더욱 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국제캠퍼스도 최근 대형 연계협력 사업과 구상이 잇따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그간 기관 차원의 교류가 없었던 이웃 기관 삼성전자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과학,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밸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적인 의료기관 신설, 한·중의학 융복합 및 동서의학 교류 같은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희가 외연 확대의 가능성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최근 경희인 모두가 함께 쌓아온 내실 덕분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교육과 연구.

미래를 조망하는 시야 확대.

그런 노력과 함께 경희의 '지구촌 연계협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흘 남짓이면 올해가 저물니다.

아쉬웠던 일, 즐거웠던 일, 안타까웠던 일을 뒤로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일들을 발판삼아 새해, 새 기운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미래로의 여정은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탄치 않을 것 같은 미래를 꿈과 희망의 세계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일지 모릅니다.

설령 그 꿈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희망의 존재인 '호모 에스페란스'<sup>Homo Esperance</sup>의 이유 있는 갈망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준비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희망으로, 내일의 희망을 미래의 환희로 이어가려는 열망과 의지, 결단이 중요합니다.

경희는 60여 년 전 전쟁의 와중에서 “문화세계의 창조”를 꿈꿨습니다.

그 꿈과 함께 피난처 부산에서 서울로, 판자 교사에서 현재의 교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희의 영원한 꿈, '세계적인 경희,' '경이로운 경희'의 확고한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교육, 연구, 실천의 지구적 탁월성을 더욱 견실하게 이어가고, 경희의 틀과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결의 시대.

상호협력의 시대.

이 화두와 함께 내부지향의 관념과 관행을 넘어, 경희의 지구시대 연계협력을 이뤄야 합니다.

탁월성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고, 세계와 미래가 신뢰하는 경희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그 미래의 가능성을 저는 며칠 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내년 5월 영국 Oxford 대학에서 개최될 세계대학총장회의를 목표로 우리가 준비해 온 <미래리포트> 중간보고에서 미래의 큰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리는 경희의 미래는 인간 가치를 숭상하고, 진리와 문명, 공동체에 헌신하는 전문 인재를 키우는 대학입니다.

그 꿈을 위해 경희는 매진할 것입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교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

미래사회와 문명의 주역,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사회와 세계, 인류의 희망과 환희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긍정의 힘, 지구적 책무를 함께 키워갔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아 경희인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통계로 본 경희 2014

주요 지표 (서울·국제캠퍼스, 의료기관)

2015. 4. 1 기준

## 1. 재정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4 결산	2015 예산
대학(서울/국제 통합공시)	4,771	5,040
산학협력단(서울/국제 통합공시)	1,743	1,854
경희의료원	3,211	3,161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003	2,105

\* 2014 : 결산 기준 / 2015 : 추경예산 기준  
천만에서 반올림

## 2. 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교수	510	267	777
전임교원			
부교수	217	123	340
조교수	219	87	306
전임강사	-	-	-
총 교원수	946	477	1,423

## 3.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일반직	214	167	378
연구직	8	5	13
기능직	34	31	65
연봉계약직	-	9	9
총 직원수	256	209	465

## 4. 의료기관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무직	169	100
간호직	787	564
약무직	40	41
의료기사직	230	171
연구직	10	1
기술직	17	9
기능직	446	501
임상계약직 교원	83	68
전공의	572	202
기타	24	-
총계	2,381	1,657

## 5.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학부	12,819	12,147	24,966
대학원	5,665	1,694	7,359
총 학생수	18,484	13,841	32,325

## 6. 취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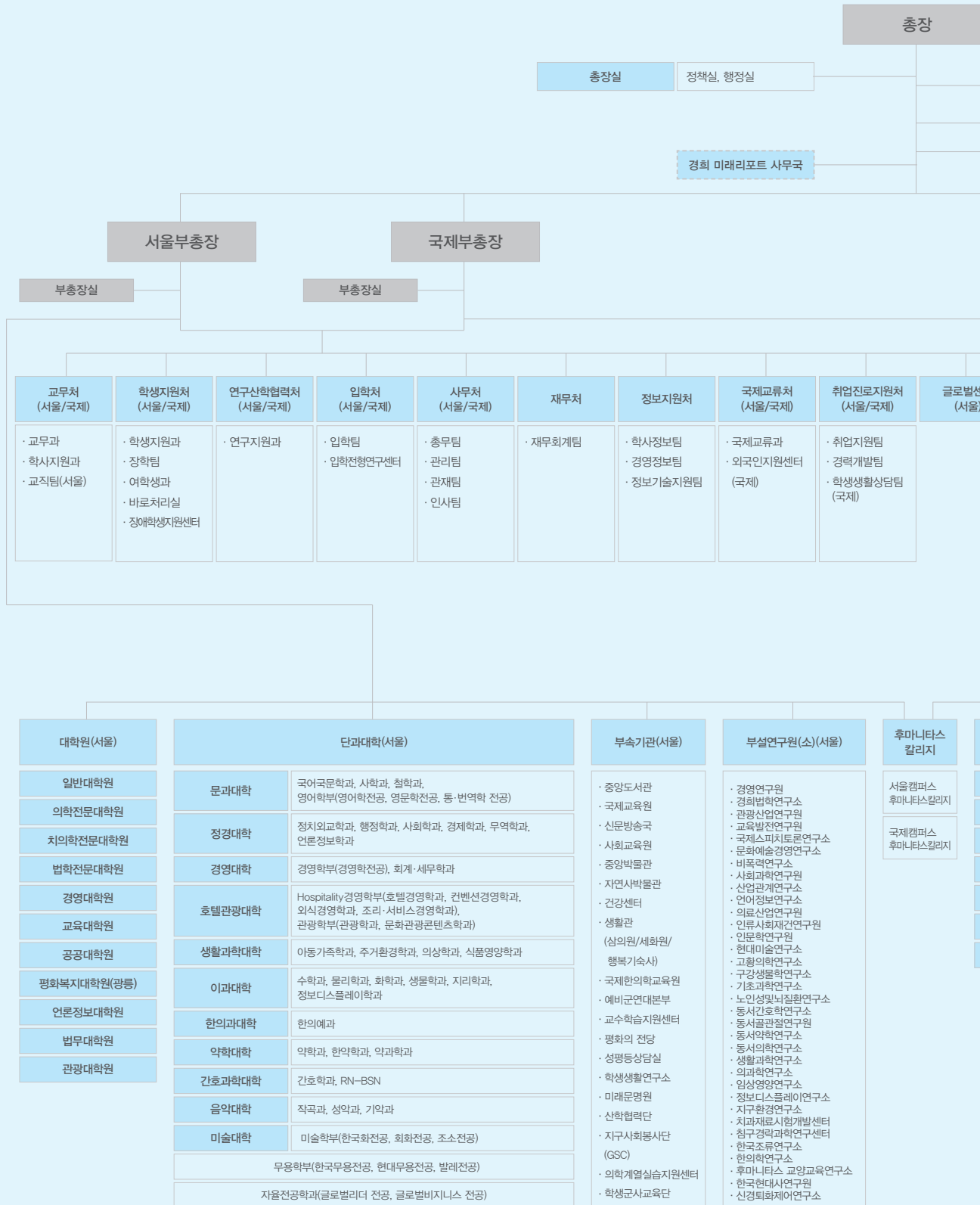
구분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서울	50.3
국제	51.0
계	50.6

\* 기준일: 201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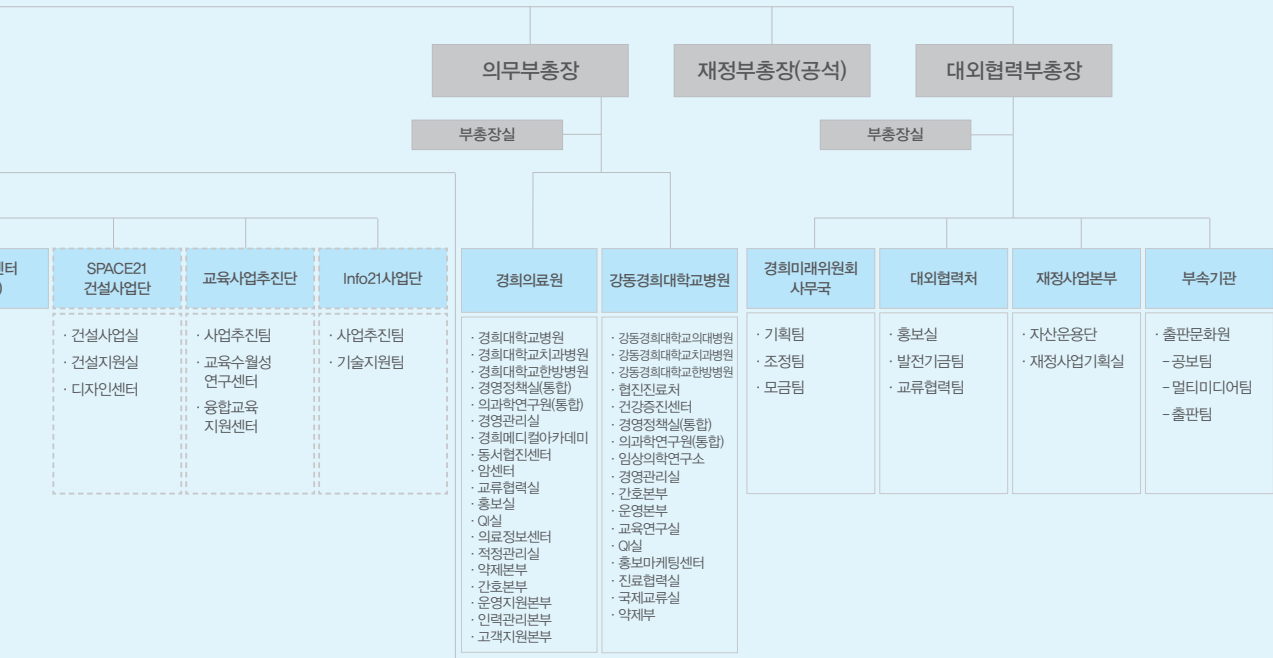
# 경희대학교 기구표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학술진흥팀

감사행정원 법무·회계팀, 행정감사팀, 옴부즈팀

교무위원회, 발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대학문화기획위원회 등



대학원(국제)	단과대학(국제)	부속기관(국제)	부설연구원(소)(국제)
일반대학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건축학과	· 중앙도서관 · 신문방송국 · 평생교육원 · 언어교육원 · 건강센터 · 생활관 (우정원/제2기숙사) · 체육부, 체육교육관 · 공학교육혁신센터 · 천문대 · 예비군연대본부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해정박물관 · 산학협력단 · 학교기업 (한방재료가공) · 원자료센터 · 지구사회봉사단 (GSC) · 학생군사교육단	· 국제지역연구원 · 레이저공학연구소 · 산학협력기술연구원 · 비교문화연구소 · 자연과학종합연구원 · 국제학연구소 · 생명자원과학연구원 · 예술디자인연구원 · 스포츠과학연구원 · 정보통신SoC연구소 · 식물대사연구소 · 멀티미디어기술연구소 · 융합지식연구소 · 디스플레이부품소재 · 지역혁신센터 · 피부생명공학센터 · 응용분자과학연구원 · 제2외국어교육시스템 · 연구센터 · 아프리카연구원
동서의학대학원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체의공학과		
국제대학원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 우주과학과		
체육대학원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방재료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		
교육대학원	국제대학 국제학과		
테크노경영대학원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연극영화학과, Post Modern 음악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태권도학		

표시된 경희 미래리포트 사무국, 교육사업추진단, SPACE21건설사업단, Info21사업단은 임시기구임.



## 목련리포트

2015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발행일 2015년 6월 1일

발행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www.khupress.com](http://www.khupress.com)

[khsd3080@khu.ac.kr](mailto:khsd3080@khu.ac.kr)

© 경희대학교, 2015

ISSN 2005-7539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